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8일(음력 6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640 호

혜거 스님의 '수험생을 위한 입시기도'

"온가족이 한마음으로 매진해야"

봉은사 대입 특강개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사찰마다 입시 100일 기도가 봉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8월 1~7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시 무료특강'을 개최했다. 8월 1일, 500여 명의 학부모가 자리를 메운 봉은사 법왕루에서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첫 번째 특강으로 '수험생을 위한 입시기도'를 주제로 법문했다. 입시기도를 하는 학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한 혜거 스님의 조언을 정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 앞둔 8월 1일, 여름휴가철임에도 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봉은사 입시특강에 참가해 진지하게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과 학업성취 등 다양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성취'를 전제로 합니다. 기도를 하고도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성취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간절한 원력이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경전공부도 참선도 원력이 있어야 하듯, 기도도 원력이 있어야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입시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원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이 원력입니까? 아이가 공부 못했는데 기도해서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란다면 그건 '마구니'의 마음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공부는 못하는데 기도해서 좋은 학교 가길 바라는 것은 참된 기도의 원력이 아닙니다.

수험생 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녀가 대학 시험 치를 때 까지도 어느 과에 갈지 결정을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다보니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학과'를 찾아갑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원력을 세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와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보면 아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어 하고 졸업 후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곁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는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아이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뿐인데, 이런 기본적인 부모 노릇도 하지 않은 채 남들 하는 대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서울대 나온 사람만 장관하고 고위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큰 인물이 되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그저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학과 가라고 극성스럽게 몰아세우면 자녀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한 부인은 자신의 자녀를 장군으로 발탁한 임금에게 찾아가 "우리 아이는 장군이 될 재능이 없다. 이 아이가 장군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입시기도를 시작하는 불자들이 기도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재계'입니다. 이 재계는 가족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알고 또 그것을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3일, 5일, 7일 등 짧은 기간을 정한 후 가족이 한 마음으로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장소도 가려서 가고, 화내지 않고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은 후 기도를 하면 일념(一念)으로 기도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중도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흔히 입시기도는 절에 나와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도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에서도 매일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지 않아야 하고, 한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망념이 몇 번 일어났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면 그걸로 기도는 완결된 것이겠지만, 이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10번이나 100번 단위로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기도가 일념이 되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향해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 없는 사람은 행동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로 공양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올리는 것은 무엇이든 다 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남을 위해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심과 원력을 가지고 입시기도를 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입시기도를 시작하는 불자 학부모님들은 꼭 기도를 통해 일념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가지십시오. 이번 기도에서 일념을 이룬다면 그 신심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입시기도 제대로 하려면?

- ✔ 간절한 원력을 세워라
- ✔ 자녀와 진로에 대해 대화하라
- ✔ 온 가족이 함께 '재계'하라
- ✔ 집·직장 등 생활현장에서 매순간 기도하라
- ✔ 남을 위해 공양을 올려라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꿈 펼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누는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독자위 토론 중계▶4면
名士의 여름나기-정태혁 교수▶6면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763-2980
종로,서초,방배,송파,안산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경주 보광사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조계종 교육원 '율원령' 입법 예고

설립·학사행정 제도화…행자교육원령 개정도

조계종 율원령(제정안)과 행자교육원령(개정안)이 7월 27일 입법예고됐다.

율원령은 총 6장 40조로 구성됐으며 율원 설립과 인가,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령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율원은 교육원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년 당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전체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율원은 율주와 율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율사)를 둔다. 총림 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총림 방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그 외 율원의 율주와 율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

율주는 승랍 30년 이상인 자로서 종사(비구니 명덕) 법계를 수지해야 한다. 율원장은 승랍 20년 이상인 자로서 전계를 받아야 하며 율원에서 교수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는 승랍 5년 이상인 자로서 율원 전문과정 2년과 연구과정 3년을 이수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율학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하고 승가대학(강원) 교수(강사)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율원에서는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율원이 위치한 사찰의 주지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율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며,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율원의 직제는 율주, 율원장, 율감으로 하되, 율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직제를 추가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율주는 사부대중의 율의를 계도하고 율원 대중을 지도한다. 율원장은 당해 율원을 대표하며 학사 운영을 통리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율감은 교수 중에서 율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율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율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율원의 각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학기당 16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정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율원 전문과정에 입학하려면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한다. 율원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면 율원 전문과정 2년을 수료해야 한다. 율원 전문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승가대학(강원) 부교수(중강)로, 연구과정 학위를 취득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전문과정은 2년, 연구과정은 3년. 2년간 계속해 학인 정원(휴학 중인 학인 포함)이 반수 이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행자교육원령은 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현 종령에서 사정표상 2개 이상의 '마' 또는 1개 이상의 '바'를 받으면 탈락이 결정되나 '갈마 사정회의'를 통해 교육원장이 최종 판정하도록 개정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국대 신 교수 진상조사委 조사 착수

이달 7일 장윤 스님 소환 조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산하 동국대 신정아 교수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7월 3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안 혜오 보인 스님을 조사실무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사 범위를 △신정아 교수 특별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동국대 교수 특별채용 제도 운영실태(신정아 교수 관련) △장윤 스님 이사 해임 관련사항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8월 7일 신 교수 학력위조에 대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장윤 스님을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차 조사는 8월 중순경 동국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7명의 위원 중 소위원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성직혜오 운달 스님 등 4명이 참석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9월 열리는 중앙종회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법계고시 합격자 증서 수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8월 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10차 법계고시에 합격한 200여명을 비롯 종단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법계고시 합격자 법계증서 수여 법회를 개최했다.

법계품수식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제10차 법계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 태고종의 종풍을 잇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운월 스님의 '비구니스님의 역할' 주제 학술대회 참관기

"티베트 비구니 계맥 논의 지속돼야"

지난 7월 18~20일 독일 함부르크대학 아시안 • 아프리칸연구소와 불교학재단은 함부르크대학에서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 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티베트 비구니 계단과 계맥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 국내에서는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 35 명이 참가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운월 스님(동국대 강사)이 보내온 참관기를 요약해 싣는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참조.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스님)의 역할' 주제 제1회 국제대회 장면. <사진제공=운월 스님>

달라이 라마 주최로 독일 함부르크서 3일간 개최
명성 스님,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격려사 낭독

독일의 상업 중심 도시이자 아름다운 무역항인 함부르크에서 7월 18~20일, '불교 여성 수행자(비구니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인 명성,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율원장 적연, 前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 등 35명이 참가했다. 또한 사캬디타(Sakyadhita, 세계여성불자협회)의 쏘모, 팔모 스님, 스리랑카의 란지니, 닥터 헤마, 스리랑카 비구니 쿠수마 등 많은 여성불자들이 참석했다.

대회 첫날 개최측의 인사말에 이어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명성 스님의 격려사가 배정되어 있었다. 이는 비구니 계맥이 존재하는 한국 비구니의 비구니 계단 설정에 대한 대회 주최측의 요청과 격려가 매우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주최로 열린 대회라는 것이다. 덕분에 세계의 남방불교, 대승 불교, 밀교의 각 전통을 간직한 스님들과 학자들이 대거 초빙되어, 율장의 계맥과 전통 및 역사를 조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졌다. 반면 일부 율사스님들은 너무 완고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번 학술회의는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기 위해 세계 각 승가의 증명(證明)을 받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실제 참가해보고 느낀 문제점은 다른 데 있었다.

왜냐하면 티베트에는 이제껏 비구니가 없는데, 이는 있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도입 될 때부터 아예 비구니 계맥(戒脈)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티베트 비구니 승가 설립은 티베트 비구스님들에게는 전통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일에 티베트의 대표적인 4종파 가운데 몇몇 린포체들은 그리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티베트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하려는 취지와 계획이 주로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티베트 여성 수행자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돌마 링의 견해에 의하면 실제로 티베트 여성 수행자들 자신의 뜻인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이나 대만에서 4분율(달마굽타 계통의 율장) 전통의 비구니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되면 티베트 비구스님들의 '설일체유부'의 전통과 다르게 되며, 그러면 두 가지 율장의 전통이 티베트 불교에 존재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게다가 서양 출신의 비구니들이 티베트 비구니 승가의 원조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티베트 원로 비구스님들이 환영할 리 없고 그래서 티베트 비구스님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비구니 승단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이 마련된 것은 뜻 깊지만, 다각적인 입장과 견해가 있어 단기간에 쉽게 결정날 일은 아닌 듯 보였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도 여성을 출가시켰으며, 출가한 여성 가운데는 절을 짓거나 부처님 불사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도 있었다"며 "현 시대는 물리적인 힘이 중시되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그 능력이 평가받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티베트 여성 출가자인 아닐라들은 아직 비구니 승가는 없지만, 교육환경이 그렇게 차별 받는 여건은 아닌 듯 보였다. 법문을 듣는 기회도 비구스님들과 똑같이 주어지고, 경전을 배우거나 안거를 하는 것도 차별은 없다고 한다. 또한 게쉬(경전을 가르치는 강사스님) 자격을 일부 아닐라들도 부여받는 변화된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직 한국처럼 비구니 강사나 율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비구스님들에 의해 교육받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계할 때도 2부승 제도보다는 비구스님에게만 수계 받는 1부승 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았다.

대회가 끝난 후 21일에는 달라이 라마와 발표자들 간의 만남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티베트 비구니 승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통도 아닌 율장 자체만의 전통으로 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멀지 않은 시간에 인도의 델리나 편리한 지역에 모여 각 전통의 특수한 사항이 아닌 부처님 율장의 공통부분만을 새롭게 결집하는 모임이 필요하며, 그 율은 티베트 전통인 밀교전통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티베트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전통에 따라 다르게 변한 사항은 논장과 같은 문헌에 의거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살과 자자와 안거의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통일된 율장을 실천하는 비구니 승단을 원한다" 등을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티베트 불교의 현실을 볼 때, 전통이 다른 계맥을 받아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워 보이며, 더구나 서양인 비구니가 계사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달라이 라마의 입장은 매우 난감해 보였다. 비구니 승단 설립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응하고 싶어도 각 종파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계 각 전통의 스님들과 학자들의 제의와 토론 등 여론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승단을 설립할 수 있는 순조로운 향해가 될 발판이 마련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동국대 강사

신정아 교수 사건에 대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의 입장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신정아 교수 허위 학력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면서 100년 사학 동국대학교의 위상에도 커다란 상처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깊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책이 있었으며, 저희 이사회는 이러한 질책들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하자에서부터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행정 실무적인 과오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사건의 실체를 밝힘에 있어서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난 7월 23일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계종단의 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만이 동국대학교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학교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 본질과는 다르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질서와 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애교심이나 애종심으로 포장된 이러한 시도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우는 학생들과 학교구성원들은 물론 우리 종단에 되돌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학교를 더욱더 난국에 빠지게 하고 학교의 발전을 시기하는 세력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의 사건이 학사행정상의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법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조계종단으로부터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법인 이사회의 소홀과 불찰에 의하여 이번 사건이 야기되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학교행정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고, 학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는 것 또한 법인 이사회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크게 도약하는 명문 동국의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 7. 3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성장주의'

3대 종교지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와 종교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장면.

투명한 운영 관련해 가톨릭 85.7% '긍정적'
개신교 정치적 영향력 가장 크다 47% 응답
"정교분리 넘어서 긍정적 관계 설정" 지적도

교세 및 건물 확장 등과 같은 성장주의(25%), 배타성(17.8%)과 종교단체의 부정부패(12.3%), 지도자의 도덕성(11.6%)이 종교계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다. 7월 30일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는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불교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 본당주임신부와 개신교 교회 담임목사 등 각 종교별 100명씩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종교간 갈등의 원인으로 '배타적인 전파방법'(32.1%)이 첫 번째로 꼽혔다는 것이다. 이어 '타종교 이해부족'(21.5%), '교리 차이'(14.3%), '종교지도자의 독선'(12.3%)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 가톨릭 응답자의 85.7%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불교는 56.1%, 개신교는 27.9%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차이가 있었다.

또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종교로 47.0%가 개신교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가톨릭(30.9%), 불교(20.4%) 순이었다. 선거 때 실제 득표에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개신교를 꼽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 28.6%, 가톨릭 13.9% 등으로 꼽아 정치권력에 대한 영향력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가장 특정 종교 편향적이었던 역대 대통령'으로는 김영삼(42.7%) 이승만(30%) 전두환(8.6%) 박정희(7.5%), 김대중(6%) 前 대통령 순으로 집계됐다.

결과 발표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결과 분석에 대한 각 종교계의 논평도 이어졌다.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목사는 "정치권력은 물론 실질 득표 면에서 모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개신교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박희택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교 간에 차이점들이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존재의 평등에 의한 종교 평화관으로 차이를 존중하는 종교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은 "종교계가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불교는 배타성, 개신교와 가톨릭은 성장주의 문제를 꼽았는데 배타성이 성장주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I Love Buddha / 나는 누구인가

용정운(www.zentoon.com)



美하원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의원에서 채택됐다. 미 하원은 7월 30일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공식 인정 및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질 것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을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간 종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최대 우방국인 미국 의회가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이날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령 기자**

충북 사찰 64% 식수 부적합
오염도 높은 곳 수원대체키로

휴일 이용객이 많은 충북지역 72개 사찰 중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곳이 64%인 46곳이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지역 사찰 72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46곳의 사찰에서 세균은 물론 중금속까지 검출돼 함부로 마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주는 관음사 보살사 길상사 봉덕사 화암사 연화사 등 6곳, 충주는 태고사, 청원은 청운암 안심사 현암사 청룡사 등 4곳, 옥천은 법륜사 대성사, 진천은 보탑사 대흥사 약수암 성림사, 괴산은 군자사와 청운암, 음성은 묘정사와 백운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사찰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동시설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먹는 물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구체적인 오염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오염도가 높은 곳에 대해선 수원대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경북도 · 조계종 5대 본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선언

경북지역 조계종 5대 본사와 경상북도가 불교문화유산 보존 · 관리에 함께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직지사(주지 성웅), 동화사(주지 허운), 은해사(주지 법타), 불국사(주지 성타), 고운사(주지 호성)와 경상북도(도지사 김상준)는 7월 2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 내에 있는 중요문화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불교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조계종 5대 본사는 문화재와 그 주변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문화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도는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 ·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청 문화재과장과 조계종 5대 본사의 문화재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스님들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고, 문화재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개금 · 채색 벗고 원 모습으로

보림사 ·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보존처리 완료


보림사 철불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


도피안사 철불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

개금과 채색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77호)과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이 철불로서의 자태를 드러냈다. 그간 보림사 불상은 갈색 도료가, 도피안사 불상은 도금이 입혀져 철불 본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져 있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무리하고, 최근 불상을 공개했다. 두 불상은 통일신라시대(9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 대상으로서의 존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부터 보존처리가 시작됐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표면에 갈색 도색층과 기존의 흠집을 가리기 위한 알루미늄층을 모두 제거하고, 귓불 성형을 마쳤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나발 부분에 칠해진 검은색 페인트와 개금층, 카슈층(옻칠과 같은 인공도료 피막층), 석회층(일제 강점기에 칠해진 것)은 물론 부식돼 탈락한 녹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귓불 역시 고증을 통해 성형 및 보존처리를 거쳤다.

여수령 기자

도난문화재 무조건 몰수 '위헌'

헌재 "선의취득도 처벌대상 삼는 것은 가혹"

도난문화재라 하더라도 현 보유자가 보유 · 보관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무조건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도굴된 문화재를 보유 ·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7월 26일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 매매업자 2명 등 3명이 "도난 문화재를 무조건 보유자로부터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문화재 은닉 행위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는 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5항 중 일부 부분와 '도굴됐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보유 또는 보관한 자로부터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는 104조 7항 중 일부 부분이다.

헌재는 "문화재의 은닉이나 도굴된 문화재인 사정을 알고 보유 · 보관하는 행위의 양태가 매우 다양함에도 구체적 양태나 적법한 보유권한 유무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굴 문화재를 보유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104조 4항과 관련 조항도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인정되나, 도굴 문화재의 '선의취득' 등 취득 후에 사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대한투자증권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증권투자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 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

현대불교를 읽고

☑ 634호 '가야산 관리 놓고 갈등 심화' 기사를 읽고

불교계 외호에 그치지 말고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해야

기사에서 볼 때, 해인사측에서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자구책으로서 등산로에 대한 폐쇄조치를 감행하였으나 가야산 관리사무소측에서는 그것이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갈등관계가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사전에 해인사측에서 정당한 권익을 위한 사전 법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측에서 등산로 복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인사측은 공단측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해인사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무력행사를 감행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만약 해인사에서 불법적으로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면, 국가적 이익(결국 일반국민들의 이익과 연결)과 불교계의 이익이 상충되는 갈등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단순히 불교계의 외호 또는 대변인의 역할보다는 그 갈등관계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올바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조, 경기도 분당)**

☑ 638호 이명박 후보 서울 봉헌 발언 해명 기사를 읽고

종교적 편견 가진 정치인 지도자로서의 자질 '의문'

진정한 지도자는 종교에 대한 편견은 절대로 갖지 않는 법이다. 한 국가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이 종교운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모두 하나님이 한 일이라느니 하고 있으니 종교운동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벼슬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고, 하나님이란 팔만대장경 속에도 분명히 나오는 대목으로 하나님은 천상의 신장님을 다스리는 수장이라고 나온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무지역 무득 무식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라.

(ID: 지도사)

시원한 지면 돋보인 '여름특집호'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토론 중계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는 632호(6월 20일자)~639호(8월 1일자)에 보도된 내용과 지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지면평가는 위원들의 이메일 발송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 김남기·김시열·이남숙·이상호·최임배·한주영 위원 (가나다순)〉

시의 적절 시사성 기사 늘어

최임배: 638호 여름특집호를 시원하게 잘 읽었다. 전문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도가 눈에 보인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해 가는 모습이 돋보인다. 그렇다보니 젊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든다. 상황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상호: 637호에서 시의적절한 시사성 기사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각 지방의 불교계활동 소개나 조계종단의 당면문제들에 대한 동향, 즐겨 읽도록 만드는 각종 코너와 그리고 알찬 기획기사들로 채워져 풍성했다. 특히 2면 '사찰 스님 늘고 사미사미니는 줄어' 기사를 보니 이번에 공개된 '조계종 2006 통계자료' 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제목으로 삼아서 알기쉽게 처리하였고 내용구성에 있어서도 일목요연했다.

한주영: 매주 수행에 관한 기사를 가장 재미있게 읽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수행법에 대한 소개를 접하다보면 수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다. 더불어 불교에 대한 자긍심도 커진다. 이렇게 다양하고 흘륭한 수행법이 많으니 사람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찾고 실천하면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김남기: 638호 여름특집 1면의 '산사에서 온 편지'를 쓴 월호 스님의 '애착을 버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다.

이남숙: 633호 7면 시방세계에 실린 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기사를 보니 오랜만에 거사불교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마음이 훈훈했다. 거사들의 힘이 불교발전에 아주 크기 때문에 더욱 지면을 할애했으면 한다.

작은 실수도 용납 안돼야

이상호: '선시 깊이 읽기' 와 '시집 즐겨 일기'가 詩라는 한 장르에 치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시 깊이 읽기는 그대로 살리더라도 '시집 즐겨읽기'는 조금 융통성을 두어서 시집외 다른 산문집이나 평론집,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시열: 633호 1면에 '호국불교 대토론회' 기사를 배치한 것이 거슬린다. 면면을 보아하니 정치적 색채가 짙은 단체이고 또 그런 성격의 집회를 갖기 위한 행사의 일환인 듯한데, 비중을 좀 낮게 잡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김남기: 638호 이명박 후보 서울 봉헌 발언 해명 기사는 보광 스님의 질문과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답이 명쾌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계 언론에서는 사실보도보다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했다.

최임배: 636호 6면에 실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동정의 타이틀이 틀리는 실수를 발견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신문의 질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종교적 감성의 詩 선택 했으면

이상호: 어릴 때부터 칠성불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말을 자주 들었으나 흘려들었는데, '불화속의 명장면'에서 칠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나마 듣게 되어 반가웠다. 이러한 기획기사가 서민들의 풍속에 뿌리깊이 내려져 있는 이야기들과 연관될 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도 유익한 상식을 얻게 되어 좋았다. 단지 '공광규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에서 제시된 시는 종교적 측면에서 다가오는 감동이 적어서 아쉬웠다. 시가 갖는 이념성도 존중해주어야겠지만 기왕이면 좀더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는 감동어린 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시열: 캠페인의 논술 부분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각 단계에 따라 내용파악과 문제의식이 다를 텐데…. 또 우리말 씹어먹기에 나오는 어휘는 가능하면 옆에 소개된 책 속에 나오는 어휘로 선정했으면 한다.

한주영: 종교자유에 대한 박광서 교수의 연재는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가슴 아프게, 때로는 통쾌하게 읽고 있다. 특히 숭실대 판결에서 법관들이 보여준 비상식적인 판결과 그러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회적인 분개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종교자유에 대해 깊이 있게 문제제기를 해 가고 있는 필자와 현대불교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불교계가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호: 박광서 교수의 '종교자유' 칼럼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자료와 함께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논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김남기: 큰스님이 그리운 시절이다. 역대 큰 스님들의 얘기를 신문에 연재식으로 펼치면 좋을 듯 싶다.

이남숙: 경전공부 8쪽 '선수행의 길잡이' 코너는 수행에 대해 간결하게 풀이해줘 독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심층 분석기사 늘어야

이상호: 불교경전의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해주는 내용을 실었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은 팔만사천경이라고 해서 경전이 너무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전내용을 알게 되면 좀더 쉽게 경전에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

최임배: 종단 · 사회 현실에 대해 불교적 시각으로 심층적 분석을 하는 기사가 좀더 늘었으면 좋겠다.

김남기: 최근 신문에 문화재관람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불교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종단과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 언론이 해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면 좋을 듯.

정리=김원우 기자



독자의 소리

이어령씨 스스로 물러나야

얼마 전 대장경 천년 경축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이어령씨가 일본에서 용산 온누리교회가 거행하는 러브소나타라는 기독교전도 대행사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을 선언하고 세례까지 받게 된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글을 쓴다.

그 분의 사회적 저명성으로 보아 능력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에 위촉한 것이겠으나 위촉기사를 본 것이 불과 몇 달도 채 안된 것 같은데 불교와는 모든 면에서 전혀 색채가 다른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 신자로 그것도 해외에 선교하는 자리에 얼굴마담격으로 참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불자로서 볼 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인 대장경의 천년축제를 주관하는 수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하튼 이렇게 된 이상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물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원)**

종단간 서로 자비 실천했으면

집 주변에 있는 모종단의 절에 가서 등을 접수하고 있는데 객스님이 들어왔다. 객스님이 "공양 좀 하게 해주십시요"라고 말하자, 등을 접수받을 때 그 친절하던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사자로 변하면서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로 무안을 줬다. 객스님을 아예 00취급해 보기가 민망했다.

어릴 때부터 스님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같은 스님들끼리 이리 대할 수 있는지….

말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큰 절 불사도 신도들이 삼보를 잘 받들라고 해주는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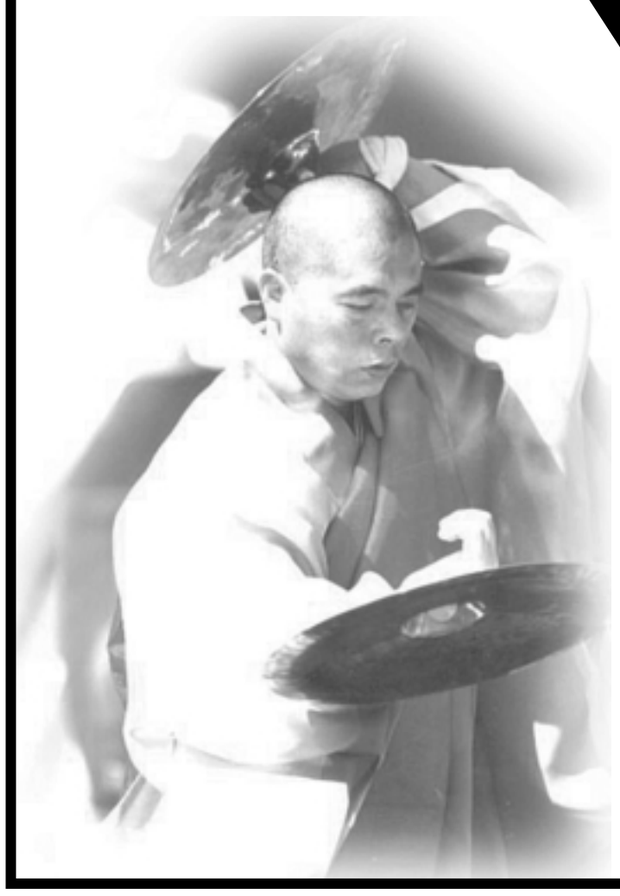
종단이나 객스님들의 행실이 어떻다고 따지기 보다는 일단은 신도들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ID: 22)**

독자투고 받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 현대불교를 읽고 느끼신 점이나 신문사에 바라는 점을 200자 원고지 2~3매 분량으로 보내 주십시요.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wwkim@buddhapia.com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작법과정 학인을 모집합니다.

◎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지도교수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9월 4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 (주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8월 1일 ~ 2007년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장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는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3 설악산 신흥사

'父子' 같은 관계 계속 이어지길…



신흥사 경내.

간간히 내리는 빗속에 설악산은 하얀 구름옷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람의 흐름 따라 구름을 덧칠하며 진경산수화를 그리고 있었다. 흑백과 컬러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담백하다. '검은 색이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고 말하려는 듯, 회색 하늘에 어두움을 차용하여 풍광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 세상에 흑색과 백색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상은 없는 것 같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의 무거움을 폭로하더니 금세 빗줄기가 빗금을 그으며 절집을 가둔다. 요사채 처마 밑에 앉아 낙숫물 소리에 귀를 씻으며 촉촉하게 젖어 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유년시절 비가 오는 날이면, 외갓집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지붕에 매달린 빗방울이 눈물방울로 변하더니 마음밭에 똑똑 떨어진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던가. 정 따라 살아온 삶이 내게는 수행의 시간이었다.

신흥사는 흥성과 퇴락을 반복하면서도 인연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신라 진덕여왕 6년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 라고 하였고 지금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세워져 46년간 불보시를 하다가 효소왕 7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의상 조사가 내원암터에 다시 중건하여 선정사라고 개칭하였고, 수많은 선승들이 수도 정진하는 절집이었지만 인조 20년 다시 화마가 휩쓸어갔다. 모두들 떠나갔지만 영서, 혜원, 연옥 스님은 중창불사를 위하여 기도에만 정진하였다. 어진 마음을 부처님이 굽어보았던지, 백발신인이 나타나 지금의 신흥사 터를 점지해 주며 "이곳은 누 만대에 삼재가 미치지 않는 신역(神域)이니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신이 길지를 점지해 주어 흥왕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신흥사라 부르게 되었다.

건봉사가 전쟁으로 전소되어 영북지방 본산 기능이 마비되자 고암, 성준 두 스님 원력으로 신흥사를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하여 업무를 이관하였다. 신흥사는 영동지역의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사를 하고 있다. 속초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참여하고, 춘천 불교방송지국을 개국하여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로 신흥사의 귀신 신자(神字)를 시대에 맞게 새로울 신자(新字)로 고쳐 신흥사(新興寺)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신흥사의 변모가 사하촌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궁금하던 차에 설악동에서 최진순씨를 만났다. "예전에는 설악산 소공원 안

관광객 줄어 상가 생계 위협
절·사하촌 상품개발 청사진 발표 등 경제 살리기 나서
족쇄 같은 규제에 쓴소리도

에 신흥사 소유의 땅에 사하촌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문성준 주지스님이 계셨을 때만해도 신흥사는 동네를 다스리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과일이 숙성될 무렵 태풍이 지나갔어요. 나는 고민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떨어진 낙과를 들고 신흥사에 찾아갔지요. 큰스님을 뵙고 낙과를 보여주며 어렵게 되었으니 도지를 낼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큰스님이 '허허' 웃으시며 관리스님에게 '과수원 최영감네 도지 2년만 받지 마라' 는 답을 얻어 가지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도지를 콩이나 잡곡으로 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탕감을 해주기도 했지요. 웬일인지 지금은 사하촌과 절집이 옛날처럼 자연스럽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사하촌은 암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와 같았다. 상가 160여 호가 있는데 장사를 하는 집은 50호 밖에 안 된단다. 사하촌 문화에 대해 묻자 "당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데 무슨 문화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예전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여 신흥사로 오르는 외길은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는데 차도 뜸하고 주차장도 텅 비어 있다.

제주도로 떠나는 관광객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하촌과 절집이 마음을 합쳐야 된다며 주민들이 청사진을 내놓았다. "설악관광호텔자리는 템플스테이 숙소로 이용하고, 사하촌에 불교문화의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신흥사에서 첫날 여장을 풀고 이튿날은 참선의 날로 정하여 마음의 짐을 벗고 다음날은 고행의 날로 정해 만해가 직접 걸었다는 금강굴에서 마득령으로 해서 오세암으로 빠져 백담까지 만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연스럽게 사하촌 경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암은 고질병이라 쉽게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주사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설악동은 상수원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집단시설지구 등 족쇄로 묶여 숨통이 막힌다고 했다. 사찰과 국립공원은 서로 절충하며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지만 사하촌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단다. 얼마 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신흥사가 머리를 모으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은 금강산에는 투자를 하면서 설악산은 이대로 두어서 되겠느냐고 쓴 소리를 했단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명절 때 속초 사람들은 보리떡을 해먹었는데 설악동 사람들은 쌀떡을 해먹었지요. IMF가 지나가고 난 후 도산위기에 놓인 경매 물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5년 까지 계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빨리 응급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속초=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통일대불.



살악동 C지구.



일주문.



극락보전.

설악동 산악구조대원 최진승 씨



설악 지형 잘 아는 심마니로 구성
산악인 위한 천도재 여는 것이 꿈

"1969년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조난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밤에 눈사태로 사고를 당했지요. 그 후 설악동에서 심마니를 하면서 발이 빠른 사람들이 민간인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등반 기술보다는 설악산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조대가 되었어요. 셀마 태풍 때 물이 갑자기 범람을 하면서 비선대에 등산객들이 갇혔지요. 비가 많이 오면 설악산은 물과 함께 바위가 구릅니다.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 요원들 모두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천불동 계곡에 가면 사람들을 구조하고 마지막으로 넘어오다가 계곡에 돌이 구르면서 줄이 끊어져 죽은 대원 명패가 귀면암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산악회 구조대와 적십자 구조대와 함께 설악산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흥사에도 산악인의 문이 있습니다만 신흥사와 함께 대한민국 산악인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신흥사가 옛날처럼 사하촌 사람들의 어려움과 기쁨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민족의 신앙과 고유관습이 불교문화와 잘 융화되는 것이야 말로 훌륭한 민족문화 유산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일주문



약사여래불 점안법회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은 8월 30일 서울 극락정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02)565-0747



장기기증 활성화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8월 15일 서울 안국동 안국선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02)734-8050



삼보법회서 '불교와 사회복지' 법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7월 29일 서울 정릉 삼보법회에서 '불교와 사회복지'를 주제로 법문했다.



수불스님 초청 천일기도법회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은 8월 14일 부산불교회관 8층 대강당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초청해 '53선지식 초청 화엄산림 천일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발반사요법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은 9월 1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제31기 발반사요법 자원봉사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02)723-5101



학업성취 100일기도 입재식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8월 8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학업성취 1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02)732-2115



일본서 종교인 평화 기원 행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8월 2~13일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제12회 종교인 평화 기원 행진을 개최한다.(02)734-6401



금산 미륵사서 부부상담교실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8월 10~12일 금산 미륵사에서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란 주제로 부부상담교실을 개최한다.(02)737-8803



불자교사 연수회서 강의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은 8월 3~5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초중고 불자교사 연수회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불교방송 키즈음악회 진행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8월 9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테마연주회-해설이 있는 키즈 음악회'를 진행한다.(02)718-4599

"마음 수행으로 더위 다스려요"

名士의 여름나기 - <2>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 주었다. 단신에 야무져 보이는 몸매의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사진). 86세라는 연세는 주민등록증이라도 봐야 믿을 수 있을 듯 건강해 보였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불을 켜지 않아 좀 어둑했지만 이내 적응됐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책을 읽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장마가 끝난 신도시, 밖은 찜통더위인데 정 교수의 집에는 선풍기 한 대 없었다.

"집집마다 에어컨을 켜고도 덥다고 난리인데 교수님께서는 선풍기도 없이 지내시나요?"

"선풍기는 필요 없어. 이 부채 하나면 여름을 거뜬히 나거든."

정 교수는 합죽선 하나를 들어 보였다. 그리고 나직이 말을 이었다.

"덥다, 덥다 말하는데 뭐가 더운지 먼저 알아야 해. 몸이 더운 건지 마음이 더운 건지 말이야. 몸이 더운 건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해결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더운 건 어떤 장치를 써도 안 되거든. 더운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최고야. 그러면 마음을 따라 몸도 시원해지거든."

우리나라 요가 보급과 학술적 연구의 선두주자이며 한국요가문화협회 300여 지도자들의 구루(존귀한 스승)인 정 교수는 "추위 건 더위 건 그것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라며 "사람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면 자연 현상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시까지 30분간의 물구나무서기를 비롯해 요가와 명상으로 수행을 한다.

그 오전의 5시간이 잠자리에 들기 전(밤 11시)까지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 주는 것이다.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등 관리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는 일에 비해 쉬운 일이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순간 닥쳐오는 일(경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으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정신은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해요. 책을 볼 땐 책에 집중하고 밥 먹을 땐 먹는 일에 집중해야지 산만하면 허점이 생기거든요. 움직임에 집중하고 생각을 흩트리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건 늘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죠. 그런 경지에서는 더위가 느껴질 수 가 없어요."

역시 마음의 건강이 여름을 이기는 비결이란 얘기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누구나 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관리'하기에 따라 병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의 산란함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각종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 단속'이 만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비법이라는 것이 정교수의 지론.

"독서는 얼마나 하시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이제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 일보다 평생 들여 놓은 것을 정리해서 꺼내는 일을 할 때 아닌가?"라며 곧 <경전을 통해 본 요가와 불교의 만남>이란 책이 나올 거라고 했다. 이 여름 그 원고작업에 더울 틈이 없었다며.

정 교수는 영어 좌우명을 설명하며 "이런 마음이 불자의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이라고 덧붙였다.

"I'm peaceful. I'm joyful, I'm wonderful, I feel greatful to see sunshine."

충만한 평화는 '열반'이고 즐거움은 '환희' 놀라움은 장엄한 법계를 의미한다. 하루하루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우주의 주인공인이라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함지골수련관 외국인 유학생 템플 스테이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수련관(관장 지일)은 7월 28~29일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에서 국내 및 외국인 유학생 템플 스테이를 개최했다. 일본,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등 15명이 참가해 발우공양과 예불, 좌선 등을 체험했다. 지일 스님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불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풍경소리 부산지사 8월 전시회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 풍경소리 부산지사(지사장 박동범)는 8월 1일 부산 구포 시민도서관에서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나눔과 수행에 관한 경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글' 위주로 30여점 선보이는 전시는 8월 말까지 계속된다. (051)462-1482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강북장애인복지관 중복 맞이 잔치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7월 27일 지역 장애인 및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복지관 식당에서 '중복 맞이 건강잔치'를 개최했다.

성산 스님은 "어르신들과 장애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치료차량 기증식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7월 26일 JTI 코리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노인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을 기증받았다. 기증식에는 로프만 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현경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앞으로 3년간 '장수만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포천 구담사, 조계종에 유아용품 기증



포천 구담사(주지 지율)는 7월 26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자비나눔운동'에 써 달라며 유아용품 1트럭분을 전달했다. 낙태반대운동인 '한생명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구담사 신도들이 모은 유아용 분유와 신발, 옷, 수건 등은 구미 마하봇다센터(원장 진오)에 전달, 이주민 쉼터의 결혼 이민자 및 출산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 죽림정사 완규조사 탄생기념 법회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7월 27일 용성진종조사의 제자인 동헌 완규조사 탄생 제 112주년을 맞아 백두대간 중심지인 장안산에서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법사단 등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문 스님은 "이 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22명의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축외국인근로자센터 서포터즈 기관 선정



영축외국인근로자종합지원센터(이사장 각문)는 7월 30일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앞으로 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체류, 서비스 제공업무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각문 스님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무료의료지원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29차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8월 14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화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可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청도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탐방



"전통 한지에는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들에게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담 스님(사진 왼쪽).



영담한지미술관 내부. 한지에 천연 염색을 해서 그린 일명 영담 스님의 한지화 1백여점이 벽에 걸려있다.

천년의 깊이 한지의 세계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제지술은 스님들에 의해 발전돼 왔는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7월 31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산골마을에 위치한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관장인 영담 스님이 마침 신도들에게 한지(韓紙) 특강을 하고 있었다.

"'지천년견오백(紙千年絹五白)'. 종이는 1천년, 비단은 500년을 간다는 말입니다.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유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영담 스님의 설명이 이어진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인쇄본이 흐트러짐 하나 없이 보존된 것은 한지의 오랜 생명력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한지 속에는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있어요. 한지에 새겨진 정교하면서 섬세한 그 무늬를 따라 칼을 움직이고 있을 때면 몇 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영담 스님에 의해 다시 탄생한 한지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청도의 봄' '산' '녹야원' '니르바나의 꽃' '윤회' 등 100여점이 걸려 있는 미술관 내부는 아담하고 소박했지만 전통이라는 쇳물을 녹여 화려한 현대적 감각의 전통 한지를 양산해 내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출가 후 30여년 동안 '한지'를 화두로 삼고 연구 정진해 온 영담 스님이 한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6살 때부터다. 한의사인 아버지 덕분에 수없이 본 첩약 봉지가 스님의 눈에 비친 첫 한지다. "한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딱지를 접어도 한지는 묵직해 절대 뒤집어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딱지 왕 이었어요. 하하하"

영담 스님도 그 당시엔 한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몰랐다. 닥나무를 삶아서 벗긴 백피(白皮)를 잿물에 4~5시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하고 뭉친 닥을 지통에 넣어 200번쯤 풀대로 힘차게 저어 잘 풀어준 후 다시 물기를 짜고 말려서 다듬고 방망이질까지 해야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성과 공이 들어간 전통 한지는 아흔 아홉 번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번 더 만져 백번의 손길이 닿게 된다고 해서 '백지(百紙)'라고도 불렀다.

"출가 전부터 한지에 관심이 많았지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지 배우기에 팔을 걷어 부친 것은 20대 중반 출가 후 원주서 한지 제조 전문가인 홍관하 할아버지에게 사사하면서 부터입니다. 홍씨는 13살 때 영변 약사사에서 스님들하고 종이를 떠본 경험이 있어 사찰 전통방법의 제지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 그림 2천여점 중 1백여점 전시
관람객들 "평생 한번 보기 어려울 듯"
산골 박물관 불구 입소문 타고 '인기'
사경 및 한지체험 템플스테이 계획

영담 스님은 단지 종이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케일 쑥 시금치 밤 도토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염료로 푸른색과 어두운 암갈색 톤의 색채에 부조회화 기법을 사용해 나무와 숲, 꽃 등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는 한지 그림을 개발했다. 일명 영담 스님의 한지화(韓紙畵)다. 화면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마치 오랜 세월 두께에서 벗어나 모습을 드러내는 유적 발굴의 유물처럼 화면으로부터 어렴풋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어떤 그림들은 직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정교하다.

멀리서 보면 직접 그린 것인지, 종이로 붙인 것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스님의 한지 그림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개장한지 1백일도 안됐지만 벌써 5백명 이상이 이 외진 산골마을에 위치한 한지 박물관을 다녀가며 방명록에 적어 놓은 글들은 더욱 이를 실감나게 해준다.

"처음 본 한지의 세계, 선경에 들어왔다 갑니다."(서선아/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매실동)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하는 작품들을 보게 돼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최상숙/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정말 보기 드문 좋은 작품 감상하고 갑니다.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신경순/대구 수성구 만촌1동)

영담 스님에겐 꿈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올해 안에 시행된다. 2박3일 정도 한지박물관에서 한지도 만들고 또 자신이 만든 종이에 사경도 하는 '사경참선 템플스테이'를 여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사찰 전통 한지 공예학교를 만들어 전통 한지의 맥을 이어 나가는 일이다.

"제 종이가 잘 나오는 것보다 제자들의 작품이 원하는 대로 멋지게 근사하게 나올 때 보람을 배로 느끼죠. 비록 시골의 작은 미술관이지만 제 자리에서 묵묵히 사찰 전통문화를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투철한 사명감이 샘솟는 답니다."

청도/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영담한지미술관 전경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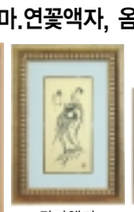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1>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

중국 당나라 시대 임제(?-867) 스님은 학인들을 맞이하여 그들의 공부를 점검할 때 큰 소리를 내지르는 '할(喝)'을 많이 쓰고 덕산(780-865) 스님은 주장자로 후려치는 '방(棒)'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유명한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을 <벽암록>에서 "덕산 스님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주장자의 모습은 마치 소나기 빗방울 쏟아지듯 하고, 임제 스님의 고함소리인 '할'은 천둥이나 벼락 치듯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을 <선가귀감> 79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臨濟喝 德山棒 皆徹證無生 透頂透底 大機大用 自在無方 全身出沒 全身擔荷 退守文殊普賢大人境界 然據實而論 此二師 亦不免偸心鬼子.

생멸이 없는 도리를 철저하게 증득하여 생사의 맨 꼭대기에서 맨 밑바닥까지 온갖 인연을 꿰뚫고 아우르면서 법을 쓰는 것이 거침없고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이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이다. 온몸으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온몸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책임지면서 문수와 보현의 경계를 지켜내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임제와 덕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한다.

임제는 어려서 출가하여 경전을 보다가 황벽 선사 밑에 3년 동안 가 있을 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주 스님이 "너는 왜 황벽 선사에게 불법의 참뜻을 묻지 않느냐?"고 하니, 그 말을 듣고 황벽을 찾아가 "불법의 참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갑자기 황벽은 주장자로 임제를 후려쳤다. 호되게 주장자를 맞고 내려온 임제는 목주의 권유로 다시 황벽을 찾아 불법의 참뜻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다짜고짜 주장자로 임제를 내려칠 뿐이었다. 목주의 간절한 권유로 그 다음날도 황벽을 찾아갔으나

또 주장자만 실컷 얻어맞고 말았다. 까닭도 모르고 매만 맞은 임제가 황벽과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황벽은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고 하였다. 대우는 자신을 찾아온 임제에게 "황벽 선사께서 요즘 무슨 법문을 하시던가?"라고 물었다. 임제는 세 번이나 주장자로 얻어맞은 사실을 말하고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처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때 대우가 "황벽 스님께서 자네를 위하여 그처럼 애를 썼는데도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라고 하자, 이 말에 크게 깨친 임제는,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군" 하고 중얼거렸다. 대우가 "아까는 잘못이라 하더니 이제는 웬 큰소리인가?" 야단치니, 임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이나 쥐어박았다.

그 뒤 임제는 황벽 스님에게 되돌아가 그의 법통을 잇고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면서 임제종의 종조가 되었다. 임제 스님이 학인들을 다룰 때는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알게 하고자 '할'이란 방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자는 스물둘이나 되었는데 그 가운데 신라의 지리산 화상도 있었다. 그 밑으로 19세(世)되는 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고려의 나옹 왕사가 법을 받고, 석옥청공(石屋淸珙)에게서 태고 국사가 법을 받아 오니 그때부터 우리나라 불교는 임제종 법맥이 큰 줄기를 이루게 되었다.

덕산은 어려서 출가하여 경에 두루 밝았는데 특히 <금강경>에 능통하여 그의 성씨와 함께 '주금강(周金剛)'이라고 불리었다. 하루는 도반들에게 말하기를 "경에서 보살행을 오랫동안 실천해야 성불한다고 말했는데 요즘 남방 스님들은 '바로 마음을 가리켜 단숨에 성불케 한다'라고 하니, 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겠소" 하고 길을 떠났다.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어떤 떡집에 들어가니 떡을 파는 노파가 "걸망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묻기에, 덕산은 "<금강경>을 풀이한 책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노파가 다시 말하기를 "<금강경>에서 '지나간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말문이 막힌 덕산에게 노파는 용담의 숭신 선사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용담사를 찾아 간 그는 "용담(龍潭)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인데 와서 보니 용도 없고 연못도 안 보이는군"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때 숭신이 나오면서 "자네는 참으로 용담에 왔네"라고 말하자 덕산은 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날 밤 늦도록 법담을 나누다가 객실로 가려 하니 바깥이 깜깜하였다. 이에 숭신이 초에 불을 붙여 내밀자 덕산이 받으려고 하니 숭신은 입으로 훅! 바람을 불어 촛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에 홀연 크게 깨달음을 얻은 덕산이 숭신 선사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숭신이 "자네는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물으니, 덕산은 "앞으로는 제가 다시 천하 큰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덕산은 애지중지 메고 다니던 <금강경>을 풀이한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으며 이후로 용담의 법을 잇는 법제자가 되었다.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법난을 겪은 뒤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불전을 없애고 설법하는 법당만 남겨두었던 덕산 스님은 학인에게 가르침을 줄 때 누구든지 보이기만 하면 주장자로 잘 때려주었으니 뒷날 이 가르침을 덕산의 '방'이라고 하였다.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는 것이 '할' '방'
시비 분별 없는 본디 그 자리 단숨에 깨치기 위함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은 어떤 뜻으로 쓰이는 것일까? 생멸(生滅)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며, 시비 분별이 없는 본디 그 자리를 단숨에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모든 시비와 분별을 떨치고 단숨에 본지풍광(本地風光)의 도리를 사무쳐 깨우치게 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에, 여기에는 대기(大機) 대용(大用)으로 온갖 인연을 꿰뚫고 아우르면서 법을 쓰는 것이 거침없고 자유자재하여 일정한 법칙이 없다. 온몸으로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면서 온몸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참다운 지혜를 드러내어 문수보살처럼 살아가게 하고 끝이 없는 보살행을 구현하여 보현보살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대인(大人)의 경계이자 부처의 경계이다. 그렇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임제와 덕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도깨비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처와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도 근본자리에서는 그 자체가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는 소식이다. 그러니 임제의 '할'이나 덕산의 '방'도 쓸데없는 짓거리로서 다도깨비장난이 아니겠는가? 이 본지풍광은 모든 시비와 분별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것에 대하여 서산 스님은 "시퍼런 칼날이니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게송으로 말한다.

燦燦寒光珠媚水 寥寥雲散月行天.
반짝반짝 하얀 물결 옥구슬이 흘러가듯
맑디맑은 푸른 하늘 흘러가는 저 달이여.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도량(道場)

도량(道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은 불도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절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도량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成道)한 자리, 곧 보리도량(菩提道場)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bodhi-ma?da이다.

도량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과 보살이 항상 머무는 곳으로서의 도량으로, 예를 들면 미타불도량(彌陀佛道場)·법신불상주도량(法身佛常住道場)·문수도량·보현도량·관음도량 등이 있다. 불도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장소 또는 불상과 보살상을 모셔놓고 예불과 치성을 드리는 곳으로서의 도량은 절(寺)과 같은 뜻을 가진다.

불공·재례 등의 불교행사와 의식을 베푸는 자리 또한 도량으로 불려졌다. 이런 도량은 주로 자연적인 여러 재앙과 나라 안팎의 병란(兵亂) 등을 물리치고 나라 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행해졌다. 소재(消災)·기상영복(祈祥迎福)·인왕(仁王)·천제석(天帝釋)·신중·관정(灌頂)·불정(佛頂)·사천왕·문두루(文豆婁)도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도량불사(道場佛事)는 고려시대에 많이 베풀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위의 도량 외에도 마리지천(摩利支天)·보성(寶星)·용왕·무능승(無能勝)·천병신중(天兵神衆)·지풍(止風)·운우(雲雨)도량 등이 열렸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3>

정신분석과 불교-3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성격의 삼원 구조이론이라고 한다.

원초아에는 인간의 모든 본능적 욕구와 추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며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같은 모든 본능이 원초아에 속한다. 원초아에 자리 잡은 본능적 욕구는 '쾌락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아는 현실 세계와 접촉하는 요소로서,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자아의 주된 임무는 원초아의 본능적 욕구와 외적인 현실 세계를 중재하는 일이다. 원초아의 맹목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려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아다. 자아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욕구 충족 방법을 택한다.

초자아에는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사회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칙,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원초아가 쾌락을 지향하는 반면 초자아는 완전과 완벽을 지향한다. 자아는 현실을, 초자아는 이상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성격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작동 원리 또한 서로 다르다. 원초아는 본능적 욕구를 당장에 충족시키려 하고, 자아는 현실에 맞추어 이를 저지하려 한다. 초자아는 원초아와 자아가 도덕과 이상, 완전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지 항상 감시한다. 이러한 자아와 원초아, 초자아 간의 부조화와 갈등이 심리적 문제의 근원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아의 역할. 성격 구성 요소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간이 이성적·합리적이며 원초아와 초자아를 잘 중재해 현실에 적응하고 살려면 자아가 강화되어야 한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무아를 설한다. 불교의 기본교리인 삼법인(三法印)에 나오듯 제법(諸法)이 무아(無我)다.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현상적 존재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처럼 자아를 강조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월할 것을 강조한다.

자아의 힘 약하면 원초아 초자아에 압도 문제 봉착
불교, 머무르지 않고 초월할 것 강조하는 무아 강조

자아를 제대로 형성하기 전에 무아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불교를 깊이 공부한 서양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즉 "노바디(nobody)가 되기 전에 섬바디(somebody)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켄 윌버는 전개인(pre-personal) 단계에서 겪는 무아감과 초개인(trans-personal) 단계에서 이룬 무아는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기능과 역할, 수준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전개인 단계의 양상을 초개인 단계로, 거꾸로 초개인 단계의 성과를 전개인 단계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전/초 오류(pre/trans-



그림 : 문병성

氣功 지도사강좌(3박 4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난치병이 치유된다
통증의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통증 고친다

수련일정 | 68기 : 8월 23일(목) ~ 26일(일)
69기 : 9월 13일(목) ~ 16일(일)

디스크, 협착, 측만, 만곡, 허리통증, 어깨통증, 좌골통, 골반통, 관절통,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 뇨실금, 수족냉증, 복부비만 등

◆ 물리치료, 약물치료, 척추교정, 침, 뜸, 부항을 통하여 다소 호전되었으나 진전이 없다.
◆ 유명하다는 곳을 다 다녔으나 당시뿐이고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된다.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각지에서 불자님들과 수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www.chgg.co.kr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회 :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 자리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500원 착불)

필름



선지식을 찾아서

철오 스님은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삼묵 스님에게 〈육조단경〉을 배우러 다녔던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스님은 선우도량 공동대표를 맡아 선우논강 법석을 개설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스님은 함양 법인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세워 1988년 포교대상을 수상했으며, 1995년에는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금은 선우도량 공동대표이며, 선학원 중앙선원장이다.

수행엔 높낮이 없으니 분별심부터 버려라

철오 스님 (선학원 중앙선원장)









서울 도심의 한 가운데 있는 선학원을 찾았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산실이요, 일제 때 항일 독립사상의 기초가 되는 스님들이 모여 활동하였던 곳이다. 정화운동을 벌일 때도 중심이 되었다고 하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한국 선을 풍미했던 큰스님들이 여기서 모여서 살았으니, 이곳 법당에 들어서면 새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오염되지 않은 사천에서 살다가 서울에 오신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공기가 탁하여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다면서 철오 스님은 차를 권하였다.

스님은 중앙선원장에 취임한 후 사찰재정운영을 신도들에게 모두 맡겼다. "원장에 취임, 인수인계하는 자리에서 신도들을 불러놓고 장부를 모두 공개하였고, 신도들의 서명도 받아 놓았어요." 스님이 소임을 맡은 동안에는 사찰의 재정은 사무장과 신도들이 하고 감독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남방불교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수행자로서 돈에 대해서는 일체 관리를 하지 않고 신도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요즈음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자주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차이점을 물었다.

250계율 다 지키고 싶었으나 제대로 못 지켜
'지키겠다' 강박관념 버리니 계율의 힘 받아
자기 마음 잘 챙기면 주변 사람이 다 '선지식'

"위빠사나는 통찰지인데, 법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해서 보는 것이 위빠사나이며, 불교수행의 시작은 사띠수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띠에 의해서 위빠사나가 이루어지고 선정(사마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마음은 모양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양이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챙겨서 보는 것이 위빠사나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라는 의문을 던져서 모든 생각과 관념을 멈추고서 화두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즉 화두란 부처님이 깨친 위빠사나의 직관과 같은 것입니다."

선학원 선원장 소임을 맡았으니 간화선을 최상승이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철오 스님은 "모든 수행에는 높낮이가 없다"고 하였다. 자기 근기에 맞아 깨달으면 그것이 최상승법이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어떤 것이 최상승이다 아니다라고 편 가르고 분별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두고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다.

"분별하지마라는 것은 사물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분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별지 차별지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상대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내 견해를 앞세우고, 내 판단과 내 정서를 앞세워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구미에 맞으면 좋아하고 나와 견해가 다르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지요."

견해를 일으킨 내가 실제로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분별심 없는 것이란다. 이것은 바로 무아를 여실히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심이 아니며, 어쨌든 이것도 수행하지 않으면 증득할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철오 스님은 머리를 깎을 때 한 가지 원이 있었다. "250개의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 비구가 되고 싶었어요. 지키지 못할 법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중노릇하면서 계율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에, 50대에 와서는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그 마음을 버렸어요. 계를 지킨다는 그 마음을 버리니 오히려 계율로부터 놓여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계 없는 수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행자의 삶은 계율에서 옵니다."

철오 스님은 신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오계는 생활의 신조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는 꼭 오계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다고 한다.

옹골찬 마음으로 출가를 했지만 공부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선방에서 참선을 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고성 운흥사에서 기도를 하였다. 운흥사 영산전에서 능엄주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흔히들 능엄주 십만 독만 하면 수능엄삼매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때 나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선지식을 친견하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3주째 접어들었을 때 능엄주 독송을 하고 나오니 온통 눈앞에 능엄주 천지로 보였어요. 밥알 하나하나 마다 능엄주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21일동안 능엄주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그때서야 능엄주가 걷히고 산천의 푸릇푸릇함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도를 마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선지식을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막상 갈 곳도 없고 해서 청년회 시절부터 쫓아다니며 법문을 들었던 삼묵 노스님이 생각나서 찾아갔다. 삼묵 노스님이 머무는 진해 진흥사에 갔더니 저녁 공양 때가 되었다. 그런데 공양상에 큼직한 꽃게가 된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오신채를 일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철우 스님은 깜짝 놀랐다. 철오 스님의 경직된 모습을 본 삼묵 스님은 게송 한 구절을 읊어주었다.

명명무오법 오법각미인 무위역무진 장사양각수(明明無悟法 悟法却迷人 無爲亦無眞 長舒兩脚睡). 밝고 밝아서 깨칠 법이 없도다/ 깨칠 법이 오히려 미한 사람을 더욱 미욱하게 하네/ 깨칠 일도 없고 역시 깨칠 도리도 없으니/두 다리 죽 뻗고 낮잠이나 자자.

이 게송을 듣자마자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두 눈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세상의 선지식들에게 속지 않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철오 스님은 올바른 신심으로 마음을 제대로 챙긴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지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법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을 보려면 지금 내가 이끌리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바로 봐 버리면 세상도 그대로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철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대원 문재현 선사/역저



전강 대선사님의 인기제자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깨한 禪법문!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 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9월 2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바로보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한암 스님(2)

사토, 경전과 어록에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한암, 적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너라

한때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승려 사토(佐藤泰舜)는 우리 불교계를 돌아본 뒤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던 한암(漢巖 · 1876~1951)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한암 선사는 곁에 놓여 있던 안경집을 들어올렸다.

다시 사토 스님이 물었다. "스님이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祖師語錄)을 보아 오는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까?"

한암 선사는 사토 스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적멸보궁(寂滅寶宮)에 참배나 다녀오너라."

다시 사토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하였는데,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겠노라"

이때 사토 스님은 일어나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활구(活句)의 법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암 선사가 말했다.

"활구라 해버렸으니 이미 사구(死句)가 되고 말았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義)인가?'라는 사토 스님의 질문에 한암 선사는 무심히 곁에 놓여있던 안경집을 들어보였다. "불법의 대의가 저 멀리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 눈앞에 있네"라는 뜻이 아닐까. <중용>에 "도야자(道也者)는 불가수유리야(不可須臾離也)니 가리(可離)면 비도야(非道也)니라"는 말이 있듯이, 불법(道)은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며, 떠나 있다면 이미 불법이 아닌 것이다.

경전과 어록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한암 선사는 "적멸보궁에 참배나 다녀오라"고 경책한다. "불법의 정수를 어찌 문자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적멸보궁에 참배하고 새롭게 발심한 뒤 직접 문자와 언어가 끊어진 적멸(寂滅)의 경지를 체험하라"는 멋진 대답이다.

이어 한암 선사는 만년의 경계와 초년의 경계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노라"라고 답한다. 수행 상에 나타나는 경계는 어디까지나 경계일 뿐이다. 어떤 신묘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가기에, 기억에 남는 좋고 나쁜 경계가 따로 있을 리가 없다.

'佛法 정수를 문자에서 찾지 말라'는 뜻
고인들 선문답 흉내내는 '口頭禪' 경계

마지막으로 사토 스님이 활구 법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자, 한암 선사는 끝까지 자비를 아끼지 않는다. "입을 열고 생각을 움직이면 벌써 그르쳤느니라(開口卽錯 動念卽乖). 죽은 말(死句) 그만하고 참구나 하거라" 하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이처럼 한암 선사는 고인들의 선문답을 흉내 내어 읊조리는 '구두선(口頭禪)', '앵무새선'을 크게 경계하였다. 1925년 서울 봉은사 조실로 있다가, "차라리 천고(千古)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27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암 선사의 이런 경책을 받고 크게 감명을 받은 사토 스님은, 어느 강연회에서 "한암 스님은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도인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둘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 일이 있은 뒤 상원사에는 선사를 친견하려는 일본 저명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 의심하라

염불선 근본도량 일구는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참선과 염불을 함께 닦는다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다."(영명연수 선사)

서산 대사는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다" 라고 했고, 태고보우 스님과 보조 선사를 비롯한 역대 선사들도 자성염불의 공덕을 강조했다. 근대 중국의 허운 대사는 '염불하는 자가 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하는 공안이 가장 보편적인 화두라고 까지 말했다. 이런 염불선 수행은 지난 2003년 청화 스님이 입적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게다가 염불선은 기존의 타력(他力) · 기복 위주의 염불에서 벗어나 자성미타(自性彌陀)를 깨닫는 자 · 타력 종합수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관음' · '아미타' · '지장' 등 불·보살의 명호를 짧고 빠르게 염불하라는 덕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염불삼매에 빠져든 신도들.

7월 26일 오전, 충북 청원 혜은사(043-297-5115)에서는 평일임에도 20여 사부대중이 염불정근을 하고 있었다. 1992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운 후 3000일 용맹정진 중이던 99년 11월, 오매일여(寤寐一如)를 이룬 후 진여자성(眞如自性)을 깨달은 주지 덕산 스님(사진)이 염불선을 지도하고 있었다. 스님은 매일 3회 2시간씩 염불선 정진을 이끌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공안집인 <직지심경> 강의,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마지막 주는 철야) 참선 등을 지도하면서 염불선 근본도량으로 장엄하고 있었다.



다양한 염불 · 주력 수행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염불에 대한 선입견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염불(주력)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하는 염불선을 통해 서방정토가 유심정토와 둘이 아님을 체험해 보자. 덕산 스님을 만나 구체적인 염불선 행법에 대해 들어봤다.

목숨 건 간절한 발심이 핵심

수행으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발심이 아니면 힘들다. 덕산 스님 역시 죽음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발심이 가능했다. 92년 관세음보살입상을 모시면서 무리하게 사채 빚을 얻었던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수행자의 입장으로 금전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것이었기에, 스님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하루 삼분정근을 시작했다. 정근을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 정진 중에 크고 밝고 둥근 달 가운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 수많은 불 · 보살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현전(現前)하였다.

"불 · 보살님을 친견한 그때의 벅찬 환희심이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물론 불 · 보살님을 형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참모습을 본 것이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무섭게 정진할 수 있는 용맹심이 솟았다."

정진에 대한 확신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은 3000일 염불정근이란 새로운 원력으로 이어졌다. 오랜 지병인 신장염으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고통도 정진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힘찬 정진이 어렵다는 게 스님의 경험담이다.

오매일여의 삼매에 들어야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간화선과 마찬가지로 자나 깨나 진여당체(眞如當體)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인 오매일여(寤寐一如)가 돼야 한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정진력이 생겨 오매일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신에 끄달리는 평상시 습관을 끊어야 한다. 육신은 무시이래 편안한 것을 찾아왔기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뒤로 미루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철저히 물리쳐야 한다. 스님은 천정과 사방 벽에 '오매일여'나 '용맹정진'과 같은 글자를 붙여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한다. 이런 용맹심으로 인해 스님은 삼매를 얻고, 마침내 우주만유와 둘이 아닌 진여자성과 계합하는 체험을 한다.

"유와 무를 떠난 자리, 나의 본래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가 선(禪)이며, 부처자리이다. 이는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이며 시 · 공간을 떠난 자리로서 우주를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또한 역대 불 · 조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이며 산천초목 삼라만상의 본래자리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닦으라

일상삼매(一相三昧)란 천지 우주를 오로지 하나의 부처로 보는 이른바 실상관(實相觀)이다. 모든 존재의 뿌리를, 모든 존재를 하나로, 진공묘유(眞空妙有)로, 아미타불의 무량광명(無量光明)으로 보는 삼매이다. 그리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해를 끊어짐 없이, 앞생각 뒷생각에 잡생각이 안 끼이도록 염념상속(念念相續)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이다. 이 때문에 스님은 염불시의 요령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 내서 한다면 삼매를 얻기 힘들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삼매를 이룰 수 있다.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관음!'이라고(아미타불은 '아미타', 지장보살은 '지장' 등으로) 줄여서 마음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번뇌가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수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스스로 법미(法味)를 맛볼 수 있게 돼 수행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염불하는 자성을 깨닫게 된다"

염불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덕산 스님은 "염불(주력)하는 그 놈을 의심하면 조사선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자'나 '이뭣고?' 화두를 들어도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得力)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속적인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이며 공부의 맛을 느낀 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챙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는 참선 수행자들에게 염불선을 널리 전하려는 뜻도 여기에 있다.

청원=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간화선 입문수련**=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은 8월 11~14일 3박4일간 봉화 축서사에서 원철, 혜산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735-2428

● **선정삼매 집중수행**=열린선원은 8월 13~17일 4박5일간 정명 스님의 지도로 아나파나사띠(호흡관)를 통해 번뇌를 제거하고 선정삼매(禪定三昧)의 방법을 배우는 집중수련회를 연다. (02)386-4755

● **염불하며 3000배 정진**=다음카페 불력회(cafe.daum.net/buddhapower)는 매달 첫째 토(오후 8시 30분) 광릉 봉선사, 둘째 토 서울 길상사, 매달 마지막 토 화계사에서 각각 염불하며 3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02)745-3351

● **다라니 1천편 독송 철야정진**=일산 덕양선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1000편 독송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031) 907-7172

화제의 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접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金나노중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 쉴 수 있어야 진짜 휴가죠”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㉖ 휴가의 참다운 의미

노는 것 보다 좋은 것

P씨는 곧 떠날 여름휴가를 위해 짐을 싸다가 빙그레 웃고 말았다. 제일 먼저 챙기게 되는 것이 경전과 스님의 법어집이었던 것이다. ‘하하. 내가 언제부터…’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30대 중반인 P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는 것을 좋아했다.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하고 춤도 잘 추는 편이었다. 어디에 가서도 소위 분위기 메이커였다.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차를 운전하며 돌아다녔다.

그 때문에 집에 있는 적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회사 동료나 친구를 불러 함께 여행을 떠났고, 안 되면 혼자서라도 반드시 떠나야 했다. 전국의 유명한 관광지는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내내 술에 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너 생활이 그게 뭐니.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마음부터 좀 다스려야겠다” 하며 절에 가자고 했다. 절? 거긴 아주머니들이 가는 따분한 데 아니야? 그러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가서 스님을 뵈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다.

스님은 “법우님, 운전을 잘하시지요? 길도 잘 찾으시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아셨지? “그 실력으로 이제 마음의 운전을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스님, 전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요.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마음 운전을 잘 하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마음의 운전 배우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침마다 10분씩 참선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얼마 동안은 다른 생각만 떠올랐다. 10분 더 자는 게 낫지 하며 귀찮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참선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일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을 집중하면 어쩐지 편안하고 짜증도 덜 났다. 저절로 “오늘도 잘 보내야지” 하면서 일어나 참선을 하게 되었다.

> 친구들과 음주가무 즐겨하던 그가
> 매일 참선하며 ‘마음 운전법’ 배워
> “ ‘마음’ 이라는 안식처 찾으니 행복”

경전과 스님의 법어집을 읽어보니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깊은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 이제 저녁이면 집에 와서 참선을 하고 법어 읽기에 빠지게 되었다.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했다. 석 달째, 이젠 집중하여 한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기가 싫었다.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이 이렇게 전혀 새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지 정말 몰랐었다.

회사업무에서 사람들과 부딪칠 때면 집에 가기 전에 절에 가서 앉아 있게 되곤 했다. 아니, 술 먹는 것보다 마음이 더 잘 풀어지잖아! 문득 이전과는 달리 침착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운전이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

이제 오년 째, 점점 술도 담배에도 관심이 멀어졌다. 과거의 자신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밤에 현란한 술집 간판과 선전물을 볼 때면 가끔 놀라게 되곤 한다. “도대체 어째서 저런 데서 밤새 술 마시고 놀았을까.” 그 답답한 곳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들만 쏟아내며 낭비한 시간들이 아깝기만 하다. 하긴 그 전엔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하하, 차 운전은 잘 해도 마음의 운전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휴가 때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노나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젠 여행지에서도 친구들과 대충 놀고, 아침저녁에 참선을 한다. 시간만 나면 법어를 보게 된다.

P씨는 때로 “이게 정말 나 맞나?” 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가득하다. “휴가요? 그 전에는 아무리 놀아도 사실 마음은 공허했었거든요. 집착과 끄달리는 마음까지 쉬지는 못한 겁니다. 스님 말씀에 마음을 쉬어라, 놓아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아, 마음이 쉬어야 진짜 휴가 아닙니까.”라며 미소 짓는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는 마음이라는 안식처다.”라는 말씀을 실감하면서 마음의 운전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 **정토회 제3기 100일 출가=**정토회가 현대인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제3기 100일 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19일 시작되는 100일 출가는 문경정토수련원에서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등 ‘나를 바꾸는 수련’을 통해 자기변화 훈련과 공동체 생활 등의 수련 코스로 진행된다. 100일 출가는 발우공양, 1만 배 정진, 대중공사, 참회기도, 포살, 〈금강경〉 〈육조단경〉 강좌 등이 마련되어 있다. (02)587-8990

● **불교인재개발원 ‘간화선 입문-화두 참선으로의 초대’=**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8월 11~14일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진행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입문 과정으로 개발된 것으로, 고우 스님의 법문과 혜산 스님의 참선 지도, 예불과 108배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편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제6기 일반과정 참가자도 함께 모집한다.(02)735-2428

● **봉원사 서울연꽃축제=**서울 봉원사가 8월 13~27일 제5회 서울연꽃축제를 개최한다. 봉원사와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연꽃축제는 13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동안 300여 종의 연꽃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연꽃사진전, 묵화전, 연꽃 도자기전, 연꽃차 시음회, 청소년 참나 찾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02)392-3007

● **불교상담개발원 가족치료 특강=**불교상담개발원이 ‘가족 치료’를 주제로 8월 특강을 개최한다. 8일 오후 4시 조계사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열리는 ‘가족 치료’ 특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이기영 소장(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이 가족상담 기법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02)737-8803

● **화계사 토요 가족예술제=**이번 주말 더위를 식히러 서울 화계사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화계사가 경내에 8개의 평상을 마련하고 ‘화계열린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화계사를 찾는 이들을 위한 쉼터인 이곳에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예술제도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화계사에서는 영화도 보고 음악도 즐길 수 있다. (02)902-2663

● **제주 호국안민기원 대법회=**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은 광복 62주년을 맞아 평화통일과 호국안민을 기원하는 ‘제주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를 8월 15~17일 봉행한다. 16일에는 조선말 불교중흥에 힘쓴 보우·지안 스님의 석상제막식도 열린다. (064)783-8801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❼

선농겸수 위한 중도노동 정신 강조

(中道勞動)

일을 마치고 승당으로 되돌아 온 후에는 고요하고 묵묵히 하여 처음과 같이 하도록 하라.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동정(動靜)의 두 모습이 여일(如一)하게 같아야 하며, 당체(當體)는 일체의 경계에 초연해야 한다. 비록 종일 노동을 하였지만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中峰明本, 〈幻住淸規〉,〈續藏經〉제111권, p499)

위에서 말하고 있는 보청의 내용으로 미루어 선종의 선농겸수를 위한 정신적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전심전력을 다해 노동에 임해야 한다. 선종에서의 노동은 생활이자 수행이므로 전력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 절대로 일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일의 많고 적음을 시비하지 않고, 일을 함에 힘이 들고 힘이 덜 들고를 따지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노동을 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일과 수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즉 좌선수행을 핑계로 노동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노동과 수행을 하나로 일치시켜 노동 그대로가 수행이 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을 할 때에도 좌선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다잡아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 “노동과 좌선할때 두 모습이 같아야”
> 農禪가풍 自宗 유지·발전의 원동력

셋째 자랑과 과시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노동을 함에 있어 승벽심(勝癖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능력을 과시해서도 안 된다. 항상 상하 대중이 화합된 모습으로 보청에 임해야 한다.

넷째 대중과 함께 노동해야 한다. 선종의 보청은 단순히 일하기 위한 작무(作務)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행생활과 경제적 자립의 당위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이 함께 하는 노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청시에는 방장으로부터 행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중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 동정이 여일(動靜如一)해야 한다. 노동의 움직임과 좌선의 고요함이 둘이 되어서는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 행주좌와의 사위의(四威儀) 가운데서 항상 여일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을 함과 하지 않음이 여일(如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 선종의 노동을 ‘중도노동(中道勞動)’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중도노동은 당연히 중도정관(中道正觀)의 수행과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도노동의 정신적 자세로 선농(禪農)을 병수(幷修)함으로 해서 선종 특유의 농선(農禪) 가풍을 수립하게 되어 훗날 선종이 외부의 충격(法難)으로부터 자종(自宗)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보청에 의한 선농병수의 가풍은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의 분등선(分燈禪)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유전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선 시대에 수행생활은 그대로가 선농겸수의 선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사의 어록이나 공안에서 이러한 사상적 맥락이 그대로 녹아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위앙종(潙仰宗)의 위산(潙山)과 앙산(仰山)의 선풍에서는 수많은 농선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논밭에서 김을 매고 차를 따는 노동선(勞動禪)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앙산 스님이 밭에서 돌아오니 위산 스님이 물었다. “밭에는 몇 사람이나 일하던가?”

앙산 스님이 삽을 놓고는 차수(叉手)하고 서자 스님께서 말했다. “오늘 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띠풀을 베더라.”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순덕 스님에게 물었다. “위산 스님이 말하기를, ‘남산에서 여러 사람이 띠풀을 벤다’ 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순덕 스님이 대답했다. “개가 왕의 사면장을 물고 가니, 신하들이 모두 길을 피한다.” (〈潙仰錄〉, 禪林古鏡叢書, 藏經閣, p98)

위산 스님께서 앙산 스님과 차밭에서 운력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소리만 들리고, 그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나와 보아라. 보고 싶구나.”앙산 스님이 차나무를 흔들어 대답하니, 스님께서 말했다. “용(用)만 얻었고, 체(體)는 얻지 못했다.” 앙산 스님이 도리어 물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스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스님께서 한참 잠자코 있으니, 앙산 스님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체(體)만을 얻었고, 용(用)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산 스님께서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20방망이는 맞아야 되겠구나.”(上同, p33)

한 뙈기 새밭 개간하여
한 웅큼 곡식 심었네.
고개를 들어 한가하게 바라보니
산도 푸르고 물도 푸르러라.
낮이면 밥 먹고
밤이 되면 그저 잠잘 뿐이네.
피곤하면 다리 뻗고 쉴 뿐이니
모든 것이 만족하여라.
팔구월이 돌아오면
울타리 그득하게 노란 국화 피어 있으리.(上同, p125)

위의 예에서 보듯이 논밭을 개간하고, 곡식을 가꾸고, 풀을 베고, 차(茶)를 만들고 하는 일은 선문의 다반사라 농선(農禪)의 전통이요, 노동선(勞動禪)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가 되는(平常心是道) 이런 의미의 선농겸수의 가풍은 임제종(臨濟宗)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계속)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한여름에 만나는 가족모두를 위한 공연 '한여름밤의 동물원콘서트'가 개최된다. 8월 15일 동물원 광장 상설무대에서 열릴 이번 공연은 마술쇼와 비보이 특별공연과 가수 동물원의 무대로 이어진다. (02)500-7114

서울 노원구청에서는

진품 공룡 화석을 직접 보고 만져도 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학습 기회가 될 '공룡화석 진품 전시회'를 연다. 8월 6일~10월 15일 노원구 청사 1, 2층 갤러리 및 야외 테라스에서 진행되는 전시에는 실물 복원 공룡과 진품 화석 13여종이 전시되며, 하루 2회 공룡학습 체험강의도 시행한다. (02)950-3300

충북 제천시에서는

8월 9일~14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된다. 세대, 차이, 경계, 지역을 뛰어넘어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제를 지향하는 이 축제는 71여 편의 최신 영화 상영, 국내외 최고 뮤지션들의 25여회 콘서트 등 풍성한 행사를 개최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홈페이지(www.jimff.org)에서. (02)925-2242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제9회 전국 청소년 전주한지미술제'가 열리고 있다. 행사는 8월 12일까지며, 입상작 기획전시와 중국 시안시 교류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는 박물관과 함께 하는 여름방학 체험 한마당도 펼쳐진다. (063)223-5651

전남 여수에서는

'제8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8월 9~11일 여수 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과 연계해 BIE회원국 35개나라 청소년 105명을 초청, 교류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축제는 음악 경연대회, 바다레포츠 체험, 가면댄스 파티, 외국청소년 어울마당. 전통부채 만들기 등 체험행사, 청소년 장터 등으로 진행된다. (061)690-8369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의미있는 '광복절' 보내요



'대~한민국' 힘껏 외쳐보세요

자유와 독립 위해 애쓰신 분들 생각하며 나라의 소중함 생각하자

벌써 8월이야. 달력을 보니 한가운데 '빨간 날', 광복절이 있네.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광복절은 방학 중 휴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실 참 뜻 깊은 날이지. 그 이름에도 '빛 광(光)' 자에 '돌아오다 복(復)' 자를 썼어. 즉, 빛이 되돌아온 날이란 뜻이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또 학교에서 배웠듯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제지배 아래에 있었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콧수염을 기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 우리는 1910년 한일합방의 운명을 맞이했거든.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도 정신도 재산도 빼앗긴 상태였어. 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폐한 삶을 교과서에서 보고 흥분한 사람들도 많을 거야.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어때? 실감나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될 거야. 그런 힘든 날들을 이겨내면서, 겨레의 자유를 찾기 위해 애쓰신 분들을 독립운동가라 불러. 김구·안창호 선생님 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참 많아. 요즘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 기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광복회라는 곳에서는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광복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날이라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힘껏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의 시작점이 1948년 8월 15일이지.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역사라서가 아니야. 한 번 빼앗겨 본 경험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날이어서지.

올해로 62년을 맞은 광복절, 절대 그냥 지나치기 없기로 약속하는 거야!





2005년 2월 나눔의집에서 '피스로드'에 참가한 한·일 대학생들. <현대불교자료사진>





핸드프린팅 작품. <현대불교자료사진>

독립기념관, 자료 강화 독립운동 한눈에
서대문형무소 국악·시낭송 등 행사 다채
나눔의 집 '피스로드'로 아픔 함께 나눠

□가 볼만한 행사는

독립기념관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대대적인 자료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올 광복절에 맞춰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전시관은 제4전시관인 3·1운동관이다. 이 전시관은 3·1운동 이전과, 당시, 그리고 이후의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운동의 전개과정은 거사시작에서 준비, 독립선언서 인쇄와 배포, 다양한 당시 생활상과 얼굴 등을 주제로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 하루, 무료관람의 기회를 마련했다.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잔혹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는 그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숙연해지게 만든다.

또한 광복절 서대문형무소 야외특설무대에서는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7개 단체가 광복과 서대문형무소를 소재로 한 국악·시낭송·뮤지컬·성악 등으로 꾸린 공연도 펼쳐진다.

□의미있는 행사는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은 광복절이 특히나 뜻 깊은 곳이다. 아직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한이 남아있어서다. 올해 '나눔의 집' 위안부역사관은 9주년을 맞았다. 8월 12일 개관기념식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함께 기획전시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월 5일~11일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청년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는 '피스로드'가 진행된다.

한편 정선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에 흘러 들어간 민요 '아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리랑, 일본에 스며들다'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다.

8월 13일~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이 특별전은 일제가 부르는 것조차 금지했던 '아리랑'이 어떻게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에게 파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에서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만들어진 다양한 아리랑 자료들과 100여 종이 넘는 희귀 자료 원본이 공개돼 흥미를 더한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포로들이 구마모토현 이츠키 지역에 살면서 조국을 그리며 부른 노래인 '이츠키의 자장가' 음반과 목각 인형 등도 함께 전시될 예정.

이밖에도 서울시청, 울산시청 등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광복절 특집 음악회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 광복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광복회 www.kla815.or.kr
–민족정기선양센터
narasarang.mpva.go.kr

김강진 객원기자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여름휴가는 다녀왔나요? 특별히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더라도 하루쯤 시간을 내어 모래톱을 보고 오거나 산계곡이나 살여울에 발이라도 담그고 오면 재충전이 되지 않을까요?

치사랑 :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은 참말로 그릇되지 않은 말이로다.)<이양하, 어머님의 기억>

모래톱 : 강이나 바닷가에 모래가 널리 깔려 있는 곳. 모래사장이라고도 하지요. (산모퉁이를 돌아오는 바람에 잔파도가 일어나서 모래톱을 핥듯이 때려댔다.)<한승원, 해일>

봉머리 : 산봉우리의 맨 위.

꾸중 : '꾸지람'의 높임말. 아랫사람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을 꾸지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꾸지람'을 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꾸중'을 듣는 거지요.

살여울 : 물살이 급하고 빠른 여울물. 유달리 센 여울.(물이 살같이 빠르니 살여울이라고 짓고)<이광수, 흙> 여기서, 살여울의 살은 화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불완전한 사회제도에서 고통받는 '개인' 묘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톨스토이 作 '부활'

'부활'은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리나'와 더불어 톨스토이의 3대 작품 가운데 하나랍니다. 로망 롤랑은 '부활'을 놓고 "톨스토이의 문학적 유언서 혹은 예술적 성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부활'이라고 하면 카츄샤와 네플류도프와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연애적 요소는 작은 주제에 지나지 않지요. 그보다는 톨스토이의 사상, 종교, 예술의 완성에 대한 추구가 71세의 노령에 이르러서도 이처럼 생기 왕성하고 위대한 걸작을 창작하게 했는가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허위와 죄악에 가득 찬 당시 러시아의 귀족 사회나 사회 환경을 그림으로써 그 불합리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해요. 또한 무서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의한 자기 정화를 강조하며, 사회악을 바로 잡기 위해 세속적 욕망을 포기할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어머니가 일하던 주인집에서 길러진 고아 카츄샤는 그 집 아들 네플류도프를 사랑한다. 청년 사관이고 공작인 네플류도프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카츄사를 자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농락하고는 군에 입대한다. 버림받은 카츄샤는 임신을 하고 주인집에서 쫓겨나 낳은 아이마저 죽은 후 윤락의 구렁텅이로 빠져 죄를 범한다. 어느 날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나온 네플류도프 공작은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받는 카츄샤를 만난다. 네플류도프는 그녀의 타락 원인이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음을 깨닫는다.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그녀의 생활을 다시 갱생시키려고 귀족처녀와의 약혼도 파혼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귀족사회에 속한 자기 생활 태도에 대하여 깊은 의혹을 품게 되고, 동시에 남의 노역으로 포식하게 되는 토지 사유제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다. 카츄샤의 감형운동을 위하여 감옥에 드나드는 동안에 그는 도움을 바라는

원숙하고 정밀한 심리 묘사로 사회조직의 허점 날카롭게 비판

무고한 죄인들과 그에 대한 냉혹한 불합리를 목격하게 된다. 그는 일신의 정리를 위해서 자기 영지에 내려가서 농촌의 궁핍을 눈앞에 보게 되고 또 빼쩨르부르그에 가서 유력자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귀족 사회의 경박함과 부패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판소에서의 인상이 사회 비판과 현대 문명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확대된다.

제1부에서는 재판소와 감옥을 중심으로서 한 사법 형벌의 세계가, 제2부에서는 자기 영지의 농민과 빼쩨르부르그 상류사회 묘사와 죄인호송대의 출발 전후의 사건이, 제3부에서는 시베리아의 죄인호송 여행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생생하게 표현한 죄인들의 생활, 시몬손을 비롯한 남녀 혁명가들의 생활은 당시의 사회를 아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어요. 또한 양심이 마비된 재판관, 부패한 관리, 상류사회 귀족들이 경멸적으로 그려진 모습은 이 나라에 혁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더구나 정부의 주구였던 러시아 정교회의 공허함이 여지없이 풍자되고 있어요. 제정 러시아의 사회생활뿐 아니라, 그 불완전한 사회제도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국민의 이상과 고통과 양심이 톨스토이의 양심을 통해서 '부활' 속에 묘사됐지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 속에서 토지문제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 자신이 큰 영지를 가진 대지주였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농사에 매달려 사는 러시아의 형편에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작품 속 스펜서의 〈사회평형론〉을 읽고 감명을 받은 네플류도프가 대학 졸업 논문을 〈토지사유론〉으로 쓰고, 자신의 사상을 실증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준다는 이야기를 넣어 의의를 부여했던 거죠.

톨스토이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잔인한 러시아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예리한 비판을 하며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시의 제도, 도덕, 생활양식을 비판했지요. 그는 '부활'이라는 대작에서 예술적 원숙미와 정밀한 심리 묘사를 통해 당시의 사회 조직이나 법률의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어요. 오늘 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부모님과의 대화, 답답해요?

부모님과 말이 통하질 않아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하기만을 바라시고 제 말은 아예 안 들으세요. 정말 답답하고 화나요. 어떤 때는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싶어요 (ID:midsarang)

결론 보겠다는 식의 대화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부모님과 대화가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선 어떤 경우에 대화가 특히 더 잘 안되고 어떤 경우는 좀 나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행동, 어떤 말, 그리고 어떤 자세나 표정이 대화를 좀 더 잘 되게 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행동이나 말을 더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손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대화를 요청할 때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응하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대화를 하실 마음의 준비를 갖추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한 번에 결론을 보겠다는 마음은 오히려 대화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잘 듣느냐에 관심과 노력을 쏟는다면 대화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표면적으로 하시는 말씀 뒤에 깊이 들어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 따지는 말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면 대화가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비난이나 불평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내가 왜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모님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편지나 쪽지를 써 보세요. 부모님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진지한 대화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을 글로 써서 드려 보세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열어 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사이버상담개발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양촌법계사신중탱화(동)
양촌법계사삼세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행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발건강 지압 샌들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풍산동 99%
조극세사 원단
바이오실리콘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건강슬리퍼
발볼조절가능
바이오실리콘
조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生死一如' 하니…건강한 죽음이 곧 '웰빙'



마지막 선물
오진탁 지음
세종서적 펴냄 | 1만원

죽음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연구 게재
자살의 사회적 요인 진단 · 대안 모색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무정물도 생성과 소멸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생성과 소멸의 틈에 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나'라는 존재 역시 생성과 소멸의 틈에 존재하는 유한의 존재일 뿐이다.

태어남도 살아가는 과정도 죽는 것도 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살림살이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순간 살고 있고 매순간 죽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삶과 다른 것으로 여긴다. 지금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 자체에 대한 언급과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단계에서 지금의 생명이 끝난다고 믿는 한 그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행복해지고 죽음이 두렵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간'으로 받아들여진다.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살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잘 죽는 것의 가치에 대한 관심도 떠오르고 있다. 웰빙이 곧 웰다잉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긴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처음 시도한 오진탁 교수(한림대 철학과)는 10여 년 간 '생사학'을 개척해 왔다. 1997년부터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을 꾸준히 강의해 왔다.

또 죽음에 대한 인식의 각도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착안, 생사체험교실 웰다잉 전문과정 강좌 등을 운영해 온 것.

오 교수가 최근 펴낸 <마지막 선물>은 죽음에 대한 학제적 접근과 생사에 대한 관심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입장에서 오 교수의 논지는 시작된다. 국내 1000여 개가 넘는 종합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임종실을 갖춘 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데서 오 교수는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진단하고 있다.

오 교수는 <마지막 선물>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의 각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교정시키고 있다. 특히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풍속도에 대한 상세한 진단과 대안 모색은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사회,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건강한 '죽음문화'가 정착된 사회가 건강한 삶의 문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견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만 생각했을 뿐,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죽음에 의해 마감되므로, 웰빙은 웰다잉에 의해 완성됩니다. 잘 죽지 못한 삶은 결코 웰빙일 수 없습니다.(중략)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도 없이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문화코드로 읽는 중국의 불교



중국의 불교문화
차차석 편저
운주사 펴냄 | 1만7000원

우리 문화사적 진원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이고 보면, 중국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불교사에 끼친 중국불교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교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다. 역사와 사상적인 변화 과정을 학술적으로 고증하고 설명하는 일은 부단히 진행됐지만 문화를 코드로 중국불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다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차석 박사가 정리한 <중국의 불교문화>는 중국의 불교와 관련된 문화 양상들을 상세하게 살피고 이해하는데 친절한 안내자가 된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되면서부터 중국불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응하는 양상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중국의 불교문화>는 중국 대륙이 시대별로 불교의 수용양상에 따라 변화되는 신앙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중국전통 사상과 의식이 불교와 어떻게 영향관계를 맺으며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부록으로 실린 논문 '현대 중국불교의 전개'는 근 현대 중국의 사상과 문화 정치 흐름과 불교의 관계를 통해 중국불교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건강하게 사는 63가지 비결
황의현 지음
책과 사람들 펴냄 | 1만2000원

"우리가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정신과 육체에서 오는 고통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며 동양학과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해 온 황의현씨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엮은 <건강하게 사는 63가지 비결>을 보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은 감을 잡을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인생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으로서 △국내외 명소 체험여행 △건강에 좋은 먹거리 찾아다니기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한약재 와 허브차 먹기 △최면 요법 및 명상하기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사회는 사회 양극화, 치열한 경쟁,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우울증 극복을 위한 몇 방법도 제시한다. 이를테면 △단 음식을 삼가라 △육류를적게 먹어라 △물을 하루 8잔 이상씩 마셔라 △비타민제를 충분히 복용하라 △햇볕을 하루 20분 이상 쬐라 등이다.

김주일 기자

읽기 쉽게 풀어쓴 <능엄경>



능엄경
도견 편역·해설
수능엄 펴냄 | 2만6000원

<능엄경(楞嚴經)>은 선종(禪宗)의 주요 경전으로, 인연(因緣)과 만유(萬有)를 설명하고 있으며, 10권으로 돼 있다. 특히 제 6권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이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수행문(觀音修行門)임을 설하였다. 이는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관음신앙을 알리는데 큰 영향을 준 부분이기도 하다. 이 <능엄경>에는 <화엄경>의 핵심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며,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을 '경전중의 경전'이라고 설하셨을 만큼 중하게 여겼다. 능엄사 주지 도견 스님은 <능엄경>을 읽기 쉽게 재 편찬해 소제목을 정하고 편역과 해설을 붙였다. 해설은 현대 감각에 맞게 풀어 놓아 경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인생 지침서 같다.

김주일 기자



제기차고…땅 따먹고…술래 잡고…
올 방학엔 신나게 뛰놀자



잘 놀아야 철이들지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
북녘 아이들 놀이 100가지
김종만 지음|이태수 그림
바보새 펴냄 | 각권 1만원

컴퓨터게임에 쏙 빠져드는 요즘 아이들이나 혹은 이를 묵인하는 부모들에게 민속놀이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한낱 전시품에 불과할지 모른다. 몸으로 신명나게 뛰놀았던 어른들의 어린 시절 기억을 우리 아이들이 공유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거부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번 여름 방학을 이용해 부모들의 기억을 더듬어 온 가족이 함께 시도해보자.

의정부 발곡초등학교 김종만(50) 교사가 쓴 민속놀이 백과사전인 <잘 놀아야 철이 들지>를 들고서 말이다. 제기차기부터 땅따먹기까지 100여종에 달하는 민속놀이의 놀이법, 민속학적 전통, 어원,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돼 놀이를 좋아했던 부모들이라면 한번 대충 훑어봐도 기억이 생생할 것 같다.

책은 놀이를 2개월 단위로 배열하고 있다. 계절이 바뀌고 놀이공간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아이들이 어떻게든 놀이를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요즘말로 하자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창의력' 훈련을 한 셈이다. 예를 들어 1 · 2월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놀이가 많다.

그러면 저자가 7 · 8월에 하면 좋다고 추천한 놀이인 '밤숨바꼭질'을 살펴볼까? 술래가 한 명인 보통 숨바꼭질과 달리, 이 놀이는 술래 편과 숨는 편을 갈라 논다. 우선 한 편이 대여섯 명이 되도록 편을 가른 뒤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다. 술래 편은 상대편이 멀리 숨을 때까지 기다린다

"꼭 소리 질러라!"하고 외친다. 숨는 편이 신호를 보내면, 술래 편 아이들이 찾기 시작한다. 술래 편이 숨는 편 아이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술래 차례가 바뀐다.

이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숨어야 하기 때문에 재빨리 숨을 장소를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흥미롭지 않을까? 한편 20년 이상 민속놀이 수집과 보급에 전력했던 저자는 또 <잘 놀아야 철이 들지>외에도 14년 전 선보였던 <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 <북녘아이들 민속놀이 100가지>도 손을 봐 새로 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3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4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6	불교란 무엇인가	우룡	효림
7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10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 · 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화제의 신간

대한민국 운명록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볼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졌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질 않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 · 사고들……. 8 · 15광복, 6 · 25동란, 5 · 16, 10 · 26, 12 · 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 · 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 · 전화번호와 궁합 · 자동차번호와 궁합 · 날짜로 보는 운명 · 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광스님〉 T. 032-665-8472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代) / Fax. 02-3142-4901 •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서점에 있습니다.

40%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파격 할인 판매!

올 여름
현대불교신문의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기간-

7월16일~8월 17일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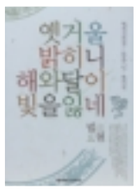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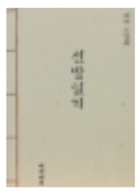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농협〉 053-01-269062

아! 위대한 5,343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金剛經



▶사진에 있는 금강경병풍보다 실제 작품이 훨씬 뛰어납니다.

• 특별보급가 : ~~5,000,000~~ ▶ 2,100,000원
10폭 병풍 (폭넓이 : 44cm / 높이 : 5자2치) ※선착 35점 한정 판매합니다.

서예작가 정담스님이 열폭 병풍 5,183字 금강경 작품1점을 45여일 시간에 걸려 정성스럽게 쓴 작품입니다.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소지할수 있게 대승불교의 핵심인 장엄한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에 한 점씩 소장하십시오. 영원불멸의 재산가치가 될 것입니다. 生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스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정담)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삼불사 금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 051)806-0316 / 휴대폰 : 011-488-0316

【서예작가 廷潭스님 약력】
·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동양철학석사
· 2002년 대한민국 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0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등 전 작품 출품 북경공예미술 대학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삼채상 수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 저서 : 命理學 재미있는 우리 사주 / 姓名學 바로 이 이름 / 사주에 모든 길이 있다 등 다수
· 한국불교 1,600년사 불교TV 서예 공로상 수상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불기 2551년 丁亥年 8月 27日 우란분절 7월백중(하안거해제) 미타재일을 앞두고 사찰이나 불자님들 가정에 대승불교의 핵심 금강경 병풍 하나씩은 두시어 49제(천도의식)이나 조상님들의 제사를 올리세요.

금강경족자, 백복도에 이어 서예작가 廷潭스님이 동진출가하여 30여년간 꾸준히 써온 금강경을 열폭 병풍으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1 法會因由分(법회인유분)에서 마지막 제32 應化非眞分(응화비진분)까지 흑지에 찬란히 빛나는 금분으로 5,183字 金剛經典(긍강경전) 한자 한자에 심혈을 기울여 직접 써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21세기 최고급 작품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금강경은 우리 인생 삼라만상에 대한 실상을 부처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살아가는 삶의 진실을 밝히시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밝은 마음 살림살이를 우리들에게 몽땅 털어놓으신 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무한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 마음속의 음달인 재앙과 업장이 소멸되고 우환이나 번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제16 能淨業障分(능장업장분) 업장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데는 금강경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제8 依法出生分(의법출생분)에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도 모두 이 金剛經에서 나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제, 천도의식, 참선, 기도, 염불, 경전공부 등 불교교리의 거대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다양하게 많습니다.
오랜세월 화엄경을 끌고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80생에 팔만대장경 49년을 분류해 보면 아함부 12년, 방등부 8년, 반야부 21년, 법화부 8년 합해 49년입니다.

불교중심의 핵을 이루는 금강경은 반야부 21년 여기에 속하고 600백권의 방대한 반야 사상 경전에 금강경은 제 577권에 해당됩니다.

금강경은 불교 교리를 거대한 수미산 산맥에 비유해 볼 때, 그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 길중에서 바로 질러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 금강경입니다. 金剛般若波羅密經은 부처님의 八萬大藏經 중에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生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廷潭스님의 마지막 작품 금강경 병풍을 이번 기회에 한점씩 소장 하십시오.

금강경을 독송하기 어려우면 사구계(사행시)라도 지녀 외우면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큰 공덕을 짓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성불한다고 설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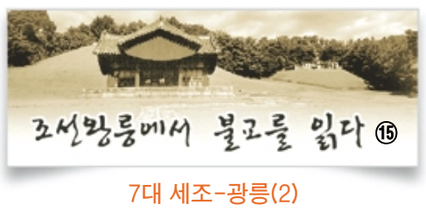
◎ 제일 사구게 : 如理實見分 (여리실견분) 제5
凡所有相 (범소유상)
皆是虛妄 (개시허망)
若見諸相非相 (약견제상비상)
卽見如來 (즉견여래)

◎ 제이 사구게 : 莊嚴淨土分 (장엄정토분) 제10
不應住色生心 (불응주색생심)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불응주성향미촉법생심)
應無所住 (응무소주)
而生其心 (이생기심)

◎ 제삼 사구게 : 法身非相分 (법신비상분) 제26
若以色見我 (약이색견아)
以音聲求我 (이음성구아)
是人行邪道 (시인행사도)
不能見如來 (불능견여래)

◎ 제사 사구게 : 應化非眞分 (응화비진분) 제32
一切有爲法 (일체유위법)
如夢幻泡影 (여몽환포영)
如露亦如電 (여로역여전)
應作如是觀 (응작여시관)

“전하! 문수동자 만났다는 것 절대 발설치 마십시오”



7대 세조-광릉(2)



광릉 전경.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참도가 없다.

경전 언해사업 등 숭불 업적 화려… ‘석보상절’ 역작
‘친불정책’ 성리학자 견제 및 업장 소멸의 수행 방편
상원사에 모셔진 문수동자 화상 소실되고 목각만 남아

상원사로부터 월정사에 이르는 계곡물은 콸콸 거침없이 흐른다. 왕은 호위하는 시종들을 멀찌감치 물리고 홀로 상수리나무 가지를 헤치며 계곡으로 내려간다. 온몸을 뒤덮다시피한 피부병에 정신이 혼미하다. 긁고 긁어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일어 그 꼴이 처참하다. 누구를 원망할 힘조차 없다. 꿈에 침을 뱉어 이 지경을 만든 형수도, 온 나라를 뒤져 명약이라고 갖다 바친 어의들도 미워하고 호통 칠 힘이 없다. 목덜미를 긁으면 옆구리가 또 가렵다. 손톱에 살점이 묻어나도록 긁는다.

거추장스런 용포가 나뭇가지에 걸린다. 시종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 뒤에 이르러, 화려한 용포를 찢듯이 벗어던진다. 진물 질질 흐르는 알몸이 된다. 중천에 든 여름해가 벌거벗은 왕을 내려 본다. 돌부리를 피해가며 물속에 몸을 담근다. 아! 시원하다. 홀로, 벌거벗고, 맑은 하늘 아래, 처음이다. 이것이 자유인가. 뼛속까지 시린 기운이 파고들지만 개의치 않는다. 얼굴과 가슴, 사타구니를 씻는다.

그 때, 떡갈나무 잎사귀 사이로 언뜻 인기척이 난다. 왕은 흠칫 놀란다. 자객인가? 평생 처음 맞는 황홀한 순간인데, 내 목을 노리는 놈이 여기까지? 조그만 아이가 형상을 드러낸다. 왕은 숨을 고르고 몸을 움츠린다.

“너, 넌 누구냐? 이 산중에?”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혼자 목욕하세요?”

휴우! 왕은 긴장을 푼다.

“아저씨, 등 밀어드릴까요? 아저씨 몸에 점이 많네요.”

얼룩진 피부를 보고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

“허허, 그래 점이 많지. 시원하게 등을 밀어다오.”

왕은 등짝을 아이에게 맡겼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 정성스럽게 등을 민다. 시린 물을 끼얹으며 등을 민다. 간지럽고 시원하다.

“아가야, 됐다. 허허! 산중에서 아이를 만나 등을 밀다니. 그런데 아가야, 산을 내려가서 누구에게도 지금 일을 말해서 안 된다. 계곡에서 왕을 만나 왕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말해선 안 된다. 내 뜻은 아니지만 너는 왕의 몸에 손을 댔다는 죄목으로 죽음을 당한다. 명심해라.”

“예, 전하. 전하께서도 약속하십시오. 상원사 계곡에서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주었다고 결코 발설하지 마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이는 이미 흔적도 없다. 아이의 손이 닿은 왕의 몸은 말갛다. 시궁창 같던 온몸이 뽀송뽀송하다. 세조는 아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합장했다. ‘아! 문수보살이시여…’

왕은, 상원사 일대와 오대산 전 암자를 뒤졌지만 동자를 찾지 못했다. 이름난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보았던 문수동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화상을 그리게 했는데 두 번을 그려도 모양이 같지 않더니 세 번째 가서야 겨우 비슷한 형상을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문수동자 화상은 상원사에 받들어 모시고 강릉 신석평 7백석지기 땅을 하사하여 문수동자를 위해 매일 불공을 드리도록 했다. 화상은 지금 소실되고 본당 오른쪽에 목각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상원사와 세조의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100일 기도 덕분에 문수동자를 친견하고 병이 나았다. 이듬해 세조는 기적의 성지인 상원사를 다시 찾았다. 불전에 참배코자 법당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난데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지엄한 용포 자락을 물고 늘어진다. 깜짝 놀란 시종들이 막대기를 휘려치며 고양이를 쫓았으나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 왕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병사들을 시켜 법당 안을 샅샅이 뒤지라했다. 그러자 불상을 모신 수미단 속에 자객이 숨어있었다. 자객을 붙잡아 끌어내자 용포를 물고 늘어진 고양이는 사라졌다.

세조는 상원사 사방 40리의 임야와 강릉 일대 만석 전답을 하사하고 묘전(猫田)과 고양이 석상을 조성했다. 또한 세조는 신미대사와 상의하여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고 안동에 가 있던 상원사 대종을 옮겨오도록 명했다. 세조 12년(1466)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 왕이 직접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행차했다.

세조의 숭불 업적은 화려하다. 신륵사, 내원사, 쌍봉사, 해인사 등 여러 사원에 노비를 하사했다. 건봉사, 표훈사, 회암사, 도갑사 등을 중수하고 용문사와 흥천사에 종을 기증했다. 세조 7년에는 천민들의 출가를 허락하고 9년에는 대원각사를 중창했다. 현존하는 원각사지 13층탑(국보 2호)도 세조 때 조성된 것이다.(세조12년, 1467)

경전의 언해사업도 화려하다. <법화경>, <선종영가집>,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한글로 번역했다. 석가모니의 전기인 <석보상절>은 세조의 역작이다. 모두가 불교적, 국어학적 보배다.

세조의 숭불, 불교 융성의 치적을 어떻게 이해할까. 진정한 신앙심의 발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심과 더불어 선택적 측면도 있다. 세조는 유교적 입지가 취약하다. 불교 융성책은 유교적 입지가 허약한 세조의 선택이기도 하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가 행한 패륜적 행적은 삭제되지 않는다. 형제들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급기야 죽여 버렸다. 명분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세조의 친불정책은 유교 이념에 투철한 성리학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끝없는 참회를 통해 업장을 녹이려는 치열한 수행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광릉은 애초부터 세조가 편히 안장될 곳은 아니었다. 왕릉 택지에 관여된 이들은 극락과 지옥을 오가야 한다. 채택되면 일약 벼락출세요, 흠결이 도출되면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조선 왕실은 툭하면 왕릉으로 신권을 눌렀다. 신하들의 군기를 잡는 방법 중에 왕릉 점령보다 더 막강한 특효약은 없다. 광릉은, 주변 산모양이 기이하고 빼어나다는 품평에 따라 정흠지의 선산이 채택되었다.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상(국보2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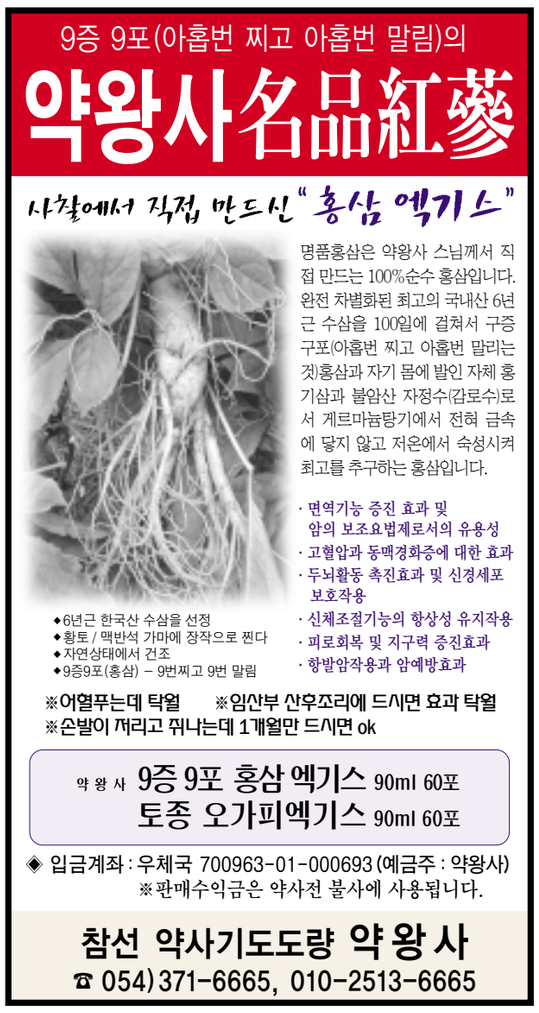
정흠지는 정창손의 아버지다. 정창손은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고 광릉 택지 시 좌익공신에, 봉원군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 실세였으나 그의 문중 선산이 왕릉으로 택지되었다. 이미 8기의 무덤이 자리한 선산을 송두리째 이장당한 정창손을 달래기 위해 예종은 호조에 명한다. ‘정창손에게 관곽 8개와 유둔(기름칠한 천막)8개, 종이 100권, 쌀과 콩을 100가마 내려주어라.’ 또 승정원에 명하여 경기관찰사는 선산 이장에 필요한 인부 50명을 뽑아 보내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인근 수백여 민초들의 무덤은 국물도 없다.

세조의 오른 쪽 언덕에 누운 비 정희왕후 윤씨 또한 대단한 용맹가, 지략가다. 계유정난 당시 거사가 누설되었다며 손석손 등이 만류하자, 중문에 이른 수양대군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 거사를 결행케 했다. 덕종, 예종과 의숙공주 등 2남1녀를 두었다. 맏아들(의경세자, 덕종)이 20세로 요절하고 둘째 아들 예종이 19세에 즉위하자 최초로 수렴청정했다. 예종이 재위 1년2개월 만에 죽자 맏아들인 덕종의 둘째 아들(그녀의 손자) 자을산군을 즉일로 즉위케 했다. 그가 성종이다. 남편, 아들, 손자의 즉위에 직접 힘을 쏟아 부은 대단한 여인이다. 정희왕후는 1483년(성종 14) 온양 행궁에서 춘추 66세로 승하했다. 세조는 그녀보다 15년전, 1468년 9월 7일 병세가 악화되어 왕세자(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튿날 수강궁에서 보령 52세로 승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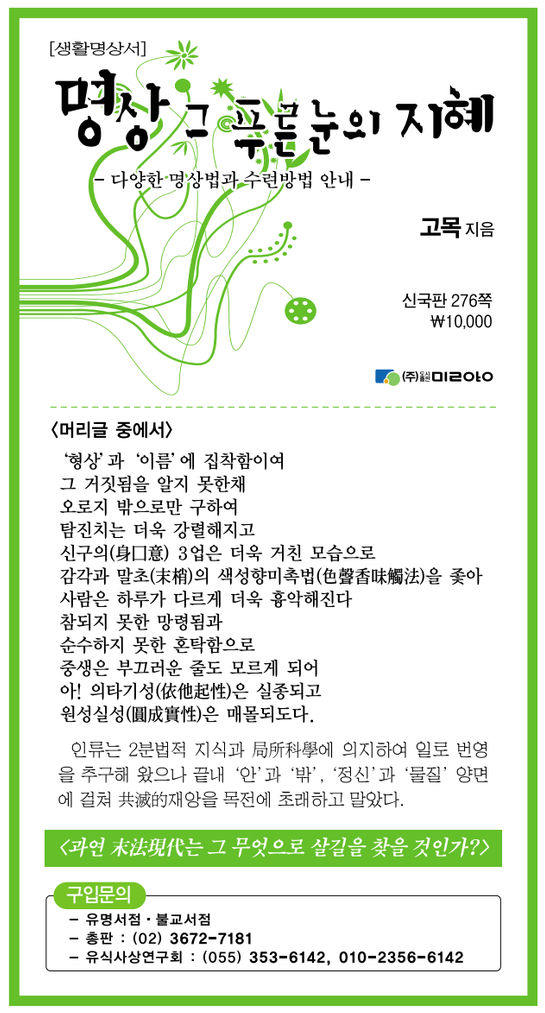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4~6,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육임직지 한글판 출시

■육임의 720과전 상세히 수록
■생년월일을 몰라도 궁금한 일이
발생한 시간이나 사람을 만난시간에
해당과전만 보면 모든 사안 정단가능
■각 과전마다 필법(백법)을 해설수록
육임직지주해/세종출판사/소담주해
1권 갑자순 2권 갑술순 3권 갑신순 4권 갑오순
5권 갑진순 6권 갑인순 7권 부록
총 7권 180,000원 농협(조일흠) 815132-52-354445
H.P 017-844-7100
TEL 055)362-2799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참선 및 영어방 안내문

◆장 소 : 길상사 ◆교육기간 : 4년
◆개강일시 : 2007년9월10일
◆정 원 : 5명 교육비, 침식 무료
◆교육대상 : 40~55세 미만의
비구니스님
◆회화중심 : 초보자 가능
◆수 행 : 참선, 일상언어:영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1리 441번지 길상사
문의 041)541-7240~1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법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도성사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재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 개인지도 가능)
전법스님 합장
033)747-6819
010-7443-3060

연화석예석재(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
567-1260
전송 031)551-1500.
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청암(靑巖)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홈페이지/동영상제작

인터넷 이곳에 가면 해결!!
홈페이지 동영상제작
법문 법회 촬영
인터넷불교TV방송
www.CBC108.TV / www.CBC108.co.kr
011-356-3427
02)837-2003

행자/학인모집

나는 이곳에 가야한다
수행을 걸쳐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여래종금강대약사사
www.yaksasa.com
031)734-3205
043)731-2261
010-9292-4828

인연(나무약사여래불)

한의학, 민간요법으로 각종질병
치료상담과 수행정진하는 비구승
으로 참된 자비행을 실천하는 곳
이면 사찰 및 민간요양시설 등 승
속을 가리지 않고 무보시로 상주
하면서 활인구제하고져 합니다
(불교의식, 사주철학 가능)
010-4561-5675

신심있는 (女)사무
종무원 및 화주보살님,
공양주보실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
행자스님도 모십니다
(사미계 수료시 승가대학 입학지원)
▷경기도 안산
011-324-5103

총무보살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11-493-1121

부처님께 귀의해서
함께 기도하며
수행할 30~40대
비구니(행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염불(전문)스님 입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본인은 역학 및 49재,천도재,
각종불공의식,서화 등등에 능통한
법랍 30여년 50대초반의 청정
비구로써 여법한 도량 노전이나
주지 또는 회주 직책 원합니다
비구,비구니,처사,보살님이 운영
하는 사찰 모두 다 가능합니다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천안시
011-568-4417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41)567-03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시 사하구 시내
총무스님010-8570-7268

천일기도할 사찰을 찾습니다

(조계종 비구스님)
010-4788-578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부산지역
010-3172-6221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
043)297-8728
011-428-8728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9408-7447

도반으로 함께할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60세 이상으로 학력이 조금
있으신분을 환영합니다
(전화벨을 일곱번이상 울려주십시오)
055)883-8846

부전스님(비구,비구니) 법당보살, 처사, 수행행자 각 1명(50세이하) 구합니다

▷대구 팔공산 신라 천년고찰
011-9176-4403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면서 지내실 분
공양주보살님
기도할 처사님,행자님
모십니다
011-561-6644

부전자리 원합니다

기도승(비구)
011-296-2685

봉 은 불 교 미 술 원

탱화 가르칩니다
◆일시 : 2007. 8. 5 - 2007. 10. 28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로 예약 받습니다.
TEL 041)541-3545/016-751-3545
홈페이지 참고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93번지 불모 오재택

사주팔자, 빙의령, 질병에 얽힌 삼각 관계를 치유합니다

1.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신분
2. 무당굿을 해도 효과를 못보신 분
3. 우울증, 가위눌림, 정신질환, 사업실패, 가정파탄, 음주, 도벽 등등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왜 들어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 무속인, 전수합, 선착순 4명
031)241-3487 / 031)257-3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근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입종하시는분께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문 의 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학력 : 고졸이상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 보 선 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木요일 오전 11:00
오후반 - 매주 月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경문 · 한문반
◆학기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정원 : 15명 ◆강의 : 金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학기 : 2008년 3월 - 2009년 2월
◆정원 : 15명 ◆강의 : 水요일 오후 2시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82㎡(25) 복조
- 요사 : 217㎡(66) 복조
- 부지 : 891㎡(270) 복조
- 가액 : 5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79㎡(24)목
- 요사 : 130㎡(462)
- 부지 : 18975㎡ (5750)
- 가액 : 20억

- 위치 : 경남
- 법당 : 99㎡(30)
- 명부전 : 660㎡(200)
- 요사 : 396㎡(120)
- 부지 : 3960㎡(1200) 외국 4950㎡(15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소백산자락 명당 사찰터 · 별장터

- 위치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산 270m 고지 높이
- 평수 : 독립구역 5,300평 (관리지역).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 4개 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지을 수 있음
-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명당터 방문후 결정요망)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 체험장 등 있음

016-573-2032 (원하시는분만 연락요)

사찰(급)안내

복지 추모사업을 위한 "절"(분할지불도 가능)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임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5천만원(융 9700만 있음)

053)471-3123/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소재
- 부지: 3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목조)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5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의 정통 사찰임

- 위치: 마산시
- 부지: 약 100평
- 법당: 40평(2층)
- 요사: 40평(1층)
- 가액: 2억 7천만원
- 특징: 신도가 많은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웰빙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논산시(대둔산 인근)
- 임야 7만여평의 청정계곡에 참나무 찜질방과 포교당을 겸한 웰빙사찰터 (팬션별장도 가능),
- 가액 : 보신 후 결정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017-405-1554 (주인직거래)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 (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5991
031)257-59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총 60평(4층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는 절충 시설비 2천만원 시설은 최상급
- 스님 사정상 급 안내 함

055)338-1328

자비사 수양원 안내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 산신각 4평, 화장실 2, 방7 넓은 자갈 주차장, 각종 밭 1천평
- 특징 : 3개 마을 대부분 박씨 문중 땅
- 1년 도지세 15만원 (문중사실 확인서 있음) 2천만원 올 수리 (찜질방 같은 문화시설)
- 가액 : 5천5백만원 (공주 신원사 주차장 옆)

010-2606-12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대지 91평, 법당 26평
- 요사 1,2층 20평(합 46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 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055)372-01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구원, 주방 시설완벽
- 삼존불,각단탱화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조절가능)

010-3007-5235
018-557-52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도심 포교원)
- 평수: 약 40평 법당, 요사채, 주지실,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시설비 1천만원 즉시 입주 법회가능

010-5877-8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대가람사찰,휴양지펜션 납골당 조성 터 (급) 안내

- 영천시 임고면. 대구에서 45분거리 (산세가 수려한 영천댐 인근)
- 임야 : 9만평 ●지방 2차선
- 평당 1만5천원(절충가능)

016-510-6774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사마을
-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요사채 30평, 화장실, 창고 18평, 주택 12평
- 땅 610평, 건물 130평
- 가액 : 3억 6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 방2개,법당1,거실
- 평수 : 30평
- 가액 : 1억3천만원

※스님불사관계로 안내함
043)288-9149
011-482-9149

사찰(터)안내

- 구미 선산 인근 관리지역 2,000평
  가액 : 2억3천만원
- 구미 도계 농림지역 7,300평
- 가액 : 1억원

011-513-931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 대웅전 13평 요사채 적벽돌
- 슬러브 40평
- 가액 8,500만원

041)943-7341
011-405-075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3층 건물 3층
- 법당 약10평 (옥탑방 사용가능)
- 보증금 700만원, 월33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30-30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42)825-3020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12,078㎡(366평)
- 기타 : 330㎡(100평)
- 법당 : 목조 기와 단청 39.6㎡(12평) 요사채 : 181㎡(55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6-820-7766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대곡아파트 단지입구 시장사거리
- 삼존불,후불탱화,신중,칠성 산신,감로탱,소종 모셔져있음
- 평수 : 약 50평, 3층 건물 3층 옥상사용가
- 큰방,작은방,창고, 거실겸주방
- 보증금 1천만원 / 월40만원 시설비 절충가

053)290-6311
011-9041-134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 대지 198평, 건평 45평
- 건물 2동 (전원주택1동 35평, 목조주택1동, 1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주변경관수려, 저수지 있음

010-4468-2100

사찰터(급)안내

- 전북 남원 천하명당 절터 남원역에서 10분거리
- 건축물 없고 대박예상 확실함 2,013평(평당 6만원)
- 꼭 투자하실 분 연락 (가격절충없음)

011-804-174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 (1억5천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근교) 국도변위치 밀양시내에서 10분 대구, 부산 30분거리
- 대지: 약200평.요사채 60평 (적벽슬라브)1동 법당 20평(아미타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일절
- 가액:1억 9천 8백만원 (전세가능) (융자 7000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8877-7913

도심사찰임대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 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도로변)
- 평수 : 100평(4층, 5층 각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 1. 행자스님모집
2. 사물,의식,강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051)867-4567
011-857-19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평
- 법당 : 15평 목조
- 요사 : 2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30만

- 위치 : 포항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33평
- 가액 : 6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
- 부지: 200평(산자락)
- 법당: 목조 25평
- 요사채(3동):25평+10평+10평
- 바다가 잘보이는 도량, 정남향,주변경관최고
- 가액:6억5천만원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아래
- 평수 70평(전용면적 50평) 건물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시설 주차장 환경 최상이며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불사에 뜻을 가지신 스님께서 포교하시기 적절한 곳임. 큰 4거리 절 안내 표지판 설치

011-9912-99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포교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8월 안으로 법당 앰프시설을 의뢰하시는 스님께는 『고성능 무선마이크1세트』를 무료 보시 합니다.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현대불교로 불교 쉽게 배워요”

‘종립학교 신문보내기’ 캠페인, 매주 28개 학교에 1000여 부 배포



‘종립학교 법보시운동’을 통해 학급에 배달된 현대불교신문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중학교 불교반 연화회 학생들. 학생들은 “현대불교를 통해 불교에 관해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매주 교실로 배달되는 현대불교신문으로 부처님과 만나요.”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1월부터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키우기 위한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본사가 전국 28개 초 · 중 · 고 종립학교에 배포하는 950부의 신문은, 학생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모든 학급에 전달된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지면은 12~13면.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논술 길잡이가 될 ‘우리 말 꼭꼭 씹어 먹기’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연재를 비롯해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상담코너 ‘우리들 생각’, ‘만화로 떠나는 철학여행’ 등 다양한 기사가 가득하다.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접하다 보니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의 ‘불교’는 어느새 생활 속 친근한 종교로 다가온다. 한 장의 현대불교신문이 교실 마다 자리한 든든한 포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원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 독지가는 익명으로 매달 1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대구지역 모 사찰의 신행모임 회장을 역임한 보살님은 남은 회비 200만원을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캠페인 후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과 자승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등 원로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주지 원담) 수덕사(주지 옹산) 선운사(주지 법만) 고심정사(주지 원택) 등의 사찰에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 보덕학회(회장 윤용숙) 등의 단체에서도 새싹 불자 키우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키우기 위한 수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자비심이 있기에,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학생들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새 마음 새 뜻으로 2학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 불자라면 누구나 수희(隨喜) 동참해야 할 일이다. 매주 사찰과 불자들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법음(法音)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 독자들의 후원을 받아 교도소와 군법당, 복지단체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法布施)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79곳의 시설과 단체에 본지 독자들의 법보시 손길이 이어졌다. 법보시 동참자들의 명단과 발송처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7년 8월 현재

구분	발송처	시설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70	174
교화기관	감별소	3	9
	교도소	47	225
	교정청	2	6
	구치소, 감호소	12	62
	소년원	12	36
군부대	군법당	336	401
	군병원	9	11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6	6
	노인복지	24	25
	복지관련대학	33	33
	복지단체	51	52
	복지협의회	5	5
	부랑인복지	3	3
	아동복지	23	23
	의료기관	16	69
	장애인복지	10	10
	지역복지	19	19
	청소년복지	10	10
합계		791	1,179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309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여만 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주)재훈개발 강경득 강대덕행 강덕순 강덕순 강도분 강명옥 강명자 강미경 강미숙(용무회) 강봉스님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영신 강욱섭 강인자 강점숙 강철암 강춘계 강황진 강후원 개목사 경연혜 계미영 故)김정희 고경옥 고광욱 고동분 고심정사 고은영 고재숙 고재흥 고준영 고종애 고필선 고헌사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관음종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자삼 구필회 국인호 권경숙 권구현 권두상 권명아 권문성 권미경 권민성 권수오 권순남 권영숙 권오응 금강심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옥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계숙 김광수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석 김기성 김기준 김기춘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남오 김다래 김덕임 김동윤 김동자 김동찬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문자 김미래 김미리 김미연 김미진 김민정 김병석 김병일 김병희 김복선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호 김상훈 김생중 김석자 김선녀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성수 김성숙 김성순 김성자 김성철 김수옥 김수정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남 김순련 김순복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 김신숙 김안숙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수 김영분 김영선 김영성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영한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섭 김용숙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원용 김유학 김윤관 김윤자 김윤정 김은기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인혜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옥 김정환 김정희 김종보 김종영 김주수 김주영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나 김지숙 김지영 김지윤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춘난 김춘자 김춘희 김태수 김태윤 김태형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한구 김향숙 김현국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경 김화남 김화일 김회철 김효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숙 김희순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국석 남선자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노창석 노훈정 논술문화단영숙 대성사 대전충북지사 대한불교진흥원 덕장스님 도미라 도순련 도이환 도태순 등욱스님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숙 류지연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맹남균 명성행 묘연보살 무공스님 무량사 무량심 문경숙 문두상 문상철 문선희 문수홍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임숙 문정희 민경애 민미자 민성곤 민정원 민지오 민진옥 박경국 박경수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금주 박금봉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이야 박맹순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기 박봉사 박봉순 박봉영 박부용 박상기 박상돈 박상섭 박상현 박상호 박상환 박선애 박성수 박성준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승목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권 박영석 박영숙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욱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인희 박장미 박재석 박재윤 박정상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박정화 박정희 박종임 박종화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배건석 배광준 배기수 배득진 배민화 배보석 배순자 배영희 배정임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배홍수 백광현 백규현 백영묵 백종희 백혜원 법륜스님 법왕사 법천스님 변영희 변융태 보광사 보덕학회 보훈법당 봉선사 봉현주 부천지역법보시(한마음선원) 불교여성개발원 불암사 삼천사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영주 서영혜 서영호 서예숙 서예준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일석 서재영 서정우 서주희 서춘건 서청자 서혜빈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운사 선원사 성경순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불하세요 성수스님 성운스님 성원스님 성재영 세진암 손대상 손문철 손수광 손순옥 손영실 손은주 송길순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재운 송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수덕사 신기세 신남선 신덕근 신동호 신미향 신비스님 신상균 신성환 신수영 신수호 신수회 신영찬 신용례 신윤기 신응교 신재덕 신재철 신정규 신정순 신정희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명헌 안병윤 안병태 안선환 안영옥 안은현 안은희 안인옥 안정은 안정포교원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 양익수 양재호 양준원 양준원 양현주 양흥용 엄재욱 엄태영 엄흥수 여상배 여연주 연주암 염흥수 영산재보존회 오경환 오광자 오금식 오미덕 오병덕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원중 오재영 오정애 오정자 오지은 오창순 오학규 오현규 오현희 옥영식 용석천 우동렬 우림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운공스님 원각스님 원택스님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명순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정오 유종옥 유준호 유지연 유지호 유진옥 유효봉 육성희 윤기석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본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성원 윤순화 윤여창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월스님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숙 윤지웅 윤지웅 윤지은 윤춘매 윤춘희 윤현숙 윤희원 율곡사 이강만 이강희 이건우 이건중 이경남 이경섭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자 이경주 이광수 이광훈 이구자 이귀순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기수 이기승 이기오 이기탁 이길순 이낙영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동구 이동일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명규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무각 이문성 이미경 이미나 이미정 이미화 이병태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숙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석순 이선례 이성수 이성용 이성표 이수빈 이수양 이숙경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남 이승윤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예은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원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철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원칠 이원호 이유순 이윤선 이은숙 이익수 이재숙 이점오 이정남 이정선 이정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임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례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종의 이종천 이종한 이준구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은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진순 이찬수 이찬호 이찬호 이창호 이천봉 이철헌 이청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희 이한희 이해 이해송 이향경 이향림 이향순 이형신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영 이희정 일진성 임경언 임경옥 임경희 임광기 임도경스님 임명옥 임선희 임성중 임성환 임영애 임옥빈 임용식 임용호 임정숙 임종구 임종덕 임종덕 임지향 임춘희 임형준 장기환 장만수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미순 장성윤 장양선 장영남 장영철 장재원 장정장정자 장정희 장해기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갑일 정갑임 정경남 정경연 정광우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만수 정명자 정미련 정상만 정성남 정수사 정수자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은경 정응균 정인순 정인실 정인자 정정애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회철 제순희 조경숙 조계사 조계희 조공옥조근영 조남희 조동섭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성준 조세은 조양순 조영석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재현 조정해 조정희 조진식 조진한 조창희 조춘희 조현수 조현주 조현정 조혜숙 조효섭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지경애 지명구 지민정 지원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진정애 차동호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천진옥 청무스님 최갑식 최경락 최금철 최병조 최병준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순옥 최양순 최연주 최영봉 최영숙 최옥자 최옥주 최원주 최윤희 최은자 최인자 최재순 최정기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준성 최준영 최진태 최진태 최타숙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혜원 최효주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태응스님 표경희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승희 하재웅 하재한 하정숙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본원외15지원 한상열 한세진 한숙희 한영순 한윤경 한은섭 한은영 한인식 한재희 한정우 한정희 한철화 한화윤 행원문화재단 허경순 허두련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재승 허정화 허추자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대불교만세 현대불교화이팅 현미숙 현타스님 현혜선 호소희 호진스님 홍경욱 홍경화 홍순아 홍애순 홍월자 홍학란 황경숙 황경순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말연 황성미 황순수 황순심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황제선 황태숙 황현숙 외 익명다수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항,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교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7년 9월 3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본대학 사무국 : 전 화 031)676-6207, 031)676-0908
팩 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연구원 건물)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개발로 상처 투성이…수행환경도 '위협'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83) 수도산 봉은사

환경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창궐하게 된 원인은 잘못된 자연관에 있다. 누천년을 이어온 사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자연을 인간의 대립적 존재나 종속된 소유물을 보고 이를 지배하고 개발해온 인간중심의 개발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초토화되고 있음을 도심의 전통사찰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걸음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도심사찰인 서울 삼성동 봉은사를 성찰적인 시각으로 돌아보았다.

흔히 봉은사를 '도심 속의 사찰'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숲속의 절이었다. 봉은사가 앉은 수도산(修道山)의 선대는 한남정맥 관악산(629)에서 갈려져온 우면산(293)이다. 강남 개발 전까지 숲이 우면산에서 봉은사가 있는 수도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30여 년 전,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회색의 바다 위에 몇 점의 섬으로만 숲들이 떠 있다. 봉은사가 깃든 수도산 숲도 그 중 하나이다.

수도산 봉은사 창건연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1932년에 세운 '봉은사사적비명'에는 신라 원성왕 때 연회국사 창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경주 봉은사 창건 이야기를 잘못 끌어다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의 화려한 변신은 주위에 조선 성종과 중종의 선정릉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조선불교의 중흥조인 보우대사가 문정왕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역사에 등장한 것도 그 후의 일이다. 문정왕후 사후 역사의 뒤안길로 침잠하였다가 일제강점기 때 31본산 중 제1 본산이 되면서 다시 역사 위로 부상하였다.

봉은사 산문은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드나들어 산만하고 소란스럽다. 차도 쪽으로 있는 철책 대신 관목으로 생울을 조성하면 소음과 먼지를 흡수할 일이다. 주차장 옆으로 늙은 수양버들이 줄지어 서 있다. 노년의 추사 김정희도 봉은사를 '물의 절'이라는 의미로 '호사(湖寺)'라고 했는데, 수양버들을 보면 예전에 이 일대가 습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여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영암당 임성선사비를 비롯한 일련의 비군(碑群)이 자리하고 있다. 임성 선사는 현대 고승으로, 젊은 날 월정사에 머물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벌목꾼들이 월정사로 들어오자 이들을 막아내고, 종내는 총독부와 담판을 지어 벌목을 취소시킨 숲의 수행자로 기억되고 있다.

비전 주변으로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팥배나무, 느티나무 등 오래 전부터 자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키 큰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주목, 회양목, 영산홍, 철쭉 등의 식재목과 겹꽃삼잎국화, 비비추, 루드베키아, 하늘나리, 벌개미취 등이 있지만, 도식적이다.

법왕루 앞쪽으로 해수관음상이 비켜 앉아있다. 영양화로 온통 녹조가 서려서 수질이 불량하다. 주변 생태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므로 연못을 위쪽으로 옮기고 비오톱 역할을 할 수 있게 생태연못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보우당 앞마당은 주차장이다. 봉은사는 경내 면적(2만3000여평)에 비하여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생태사찰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줄여 녹지율을 높여야 한다. 그 숲에다 물길을 만들고 생태연못까지 두면 생태가 되살아날 것이다.


봉은사 수양버들. 사진제공=조채희

주차장 옆 수양버들 일대 습한 곳이었음 짐작케 해
생태사찰로 거듭나려면 녹지율 높이고 연못 두어야
병약해 보이지만 비교적 식생 다양…귀화식물 강세

봉은사 경내에서 만나는 조경수는 다른 절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다. 특히 경내에 향나무를 유난히 많이 심은 것은 봉은사가 왕실의 명복을 기원하는 원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상에 비해 이렇다 할 노거수가 없다. 피골상접한 채 죽어가고 있는 보우당 뒤의 수령 300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고작이다.

대웅전과 지장전 뒤 양명(陽明)한 자리에 영산전, 북극보전, 영각(影閣) 등이 고만고만한 크기로 앉아 있다. 주변에 꽃나무들이 적지 않건만 대만흰나비를 제외하고는 곤충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름날 수도산의 곤충은 역시 참매미가 첫손에 꼽힌다.

참매미는 연한 녹색 바탕에 흑색의 무늬가 있으며, 등 쪽에 X자 모양이 돋보이고, 분을 바른 듯 몸통이 희끗희끗해서 구분이 쉽다. 날개는 비교적 크고 투명하며, 암갈색 점이 있다.

미륵대불 뒷숲으로 직박구리들이 보이지만, 수도산의 조류상은 매우 빈약하다. 우면산은 제외하고라도 접으로 이어진 매봉-도곡공원-삼릉공원-수도산-청담공원 숲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빈약하다. 고작해야 멧비둘기, 직박구리, 참새, 까치 정도이다. 수도산에 조류상이 빈약한 가장 큰 원인은 봉은사 숲속에 물이 없다는 점이다. 봉은사 뒷숲에 인공실개천을 만들어 생태연못으로 연결시키면 파괴된 생태계를 조금은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멧비둘기는 삭막한 봉은사 숲의 반가운 벗이다. 집비둘기보다 야성이 강한 멧비둘기는 무리를 짓지 않고 한 쌍이 독립해서 산다. 1년에 한차례 짝지어 2개의 알을 낳는다. 멧비둘기의 주식은 식물의 씨와 열매. 아직은 이 숲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가 편액으로 걸려 있는 판전은 조선말에 영기대사가 <화엄경소> 등 여러 경판을 봉안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화재가 유난히 잦았던 봉은사에서 이 건물의 명(命)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은 앉은 자리가 경내에서 수기(水氣)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옛 조사들은 전각 하나 앉히는 데도 땅의 성질을 살펴보고 앉혔다.

수도산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산이다. 보우대사가 제주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조정은 불교의 기를 꺾기 위해 선교양종을 다시 엎애고 불교중흥의 본거지였던 봉은사의 수도산을 절단해 풍수의 맥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나 수도산의 생채기는 개발 이데올로기가 판을 친 현대에 들어서 더 크고 깊었다. 산의 사지를 잘라 사방에 길을 내고, 산의 가슴팍을 밀어 아파트와 빌딩을 짓고, 산꼭대기를 깔아뭉개고 학교를 지었다.

봉은사 뒷숲에서 보는 목본들로는 갈참나무, 개벚나무, 개옻나무 등등 자생종과 함께 아까시, 가죽나무, 현사시나무, 왕벚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등등 식재종이 어우러져 있다. 전체적으로 병약해 보이긴 하지만, 빌딩숲 속의 야산으로서는 비교적 다양하다.

아까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본류 귀화식물이다. 20년이면 벌써 늙기 시작하는 아까시는 산사태 예방과 치료 기능이 뛰어나다. 또,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제1의 밀원수이기도 하다.

수도산 초본은 귀화식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자리공, 환삼덩굴, 서양민들레, 달맞이꽃, 서양등골나물, 망초, 개망초, 토끼풀, 미국실새삼, 흰쑥부쟁이 등등 이보다 더 많은 귀화식물들이 들어와 있다. 본래의 자연생태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자리공은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가 2미터 이상 자라는 미국자리공은 토양이 산성화된 땅에서 잘 자란다. 환삼덩굴 줄기와 잎자루에는 살갗에 상처를 줄 정도로 억센 잔가시가 많다. 잎은 단풍잎을 닮았다. 한해살이이면서도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여 주변의 초본을 뒤덮어버린다.

야생에서는 초본들이 기가 죽은 곳일수록 버섯들이 상대적으로 잘 자란다. 흰꽃무당버섯을 비롯해 큰갓버섯과 영지버섯 등등이 보인다. 버섯은 거의가 땅과 나무에 기생하는데, 땅에 기생하는 것들의 80%는 독을 갖고 있거나 식용하지 않는 버섯이다.

조사기간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된 흰꽃무당버섯 역시 땅에 기생하는 버섯이다. 전체가 무늬 없는 흰색 깔이며, 갓의 지름 5~8센티 정도이다. 처음엔 호빵모양을 하다가 갓이 피면서 깔대기형이 된다.

수도산 능선은 온통 철조망 투성이다. 숲 사이로 삼성동 일대가 내려다보인다. 삼성동 일대는 예부터 봉은사의 하사지(下賜地)였다. 그런 것을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허허벌판 12만 평을 평당 6200원에 팔았다. 지금 무역센터를 비롯해 아셈빌딩과 한국전력 등이 들어선 자리이다. 말하기 좋아서 정부의 '토지수용'이라지만, 당시 뜻 깊은 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승들이 토지매각을 주동했다. 땅을 판 돈으로 겨우 조계사 마당에 총무원 청사 하나 지었는데, 그나마 몇 해 전에 허물고 그 자리에 지금의 역사문화기념관을 세웠다. 결국 금싸라기 같은 강남 땅 12만평이 30년 만에 한줌 먼지로 돌아가 버렸으니, 더욱이 그 땅에 빌딩숲이 들어서서 수행환경까지 망치고 있으니, 1600년 한국불교가 어찌 이리도 우매할까.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봉은사 전경.


꽃매미.


미국자리공.


개옻나무.


흰꽃무당버섯.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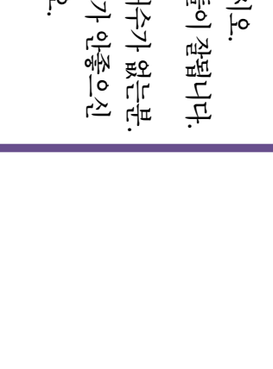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곁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대행스님

지금 시대는 부처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굳어 있으니 우스운 얘기 좀 하고 시작하죠. 그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느 산길로 들어서서 내려다보니깐 조그마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죠.

예전에 말입니다, 한 정승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정승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잠도 늦도록 잘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앉을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편안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배가 고파도 가서 달라면 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럼요. 그것이 다 아버님 덕분이죠" 하거든요.

또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휘적휘적 가다보니깐 물난리가 나서 야단들이거든요. 아마 올같이 그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정말, 아버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물난리 날 일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고, 또 땅값을 내라니 걱정인가? 아무 걱정도 없으니 이 팔자가 상팔자지 뭡니까?" 아,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지 부인더러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12월달만 되면 모두 빚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빚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참, 당신 덕분에, 당신한테 시집을 잘 왔죠. 당신 덕분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 불 나는 바람에 문득 났는데 나이가 어린 탓인지 몰라도 그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자도 누가 땅값 내라는 사람이 있나.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팔자가 좋아서, 정말이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너무 즐거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나 또 우리 스님네들이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 그때보다야 자유스럽지 못하죠. 허허허. 그땐 지금처럼 기운이 있어서 막 웃지도 못했지마는 킥킥킥킥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즐거운 웃음이었습니다. 야, 자도 땅세 내란 말도 없고, 하늘을 지붕 삼았으니 누가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집을 치우느라고 걱정할 것도 없고, 태울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집어갈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 말입니다.

단 하나, 그전에 생각을 한 거는 그때엔 나이가 어리니깐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지만 그때는 혼자 다니기가 안됐으니까 진흙을 얼굴에다 덕지덕지 칠해서 말라붙은 채 다녔던 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집을 누가 집어갈까봐 말입니다. 허허허.

참, 그때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도 때때로 그 생각을 하면 참 빙그레 하고 웃습니다. 올해도 물난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이 오시면서 '어, 비가 오네!' 그러기에 내가 '여러분이 편리하지 않을 텐데, 비가 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여러분한테 조금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을 내가 혼자….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 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가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그 싸움을 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상전은 우리 애들입니다. 심부름꾼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첫째, 참 잘해 주어야 하고, 오순도순 말도 곱고 또 융화 있게 해야 하고 잘 먹여야 하고, 잘 입혀야 하고, 잘 입히지는 못하나마, 잘 먹이진 못하나마 그래도 마음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기 이전에 인의롭게 잘 대해주고. 그런다면 따뜻하니깐 나갔다가도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 이 새끼야! 너, 공부하랬더니 만날 놀러만 다녀? 대학은 언제 들어가고, 공부는 언제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러던 버릇이 그냥 남아서 내내 애들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되고, '야!' 이렇게 되고 부인더러도 '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이런 거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의 교양이라든가 그 습의 도리를 볼 때, 아내더러도 존대하는 거, 자식한테도 '해라'를 하지 않는 거, 자식들이 보는 데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만은 참 보고 배울 만합니다. 또 남이 뭐를 주면 반드시 그 접시에 대신 다른 걸 담아서 주는 거, 이런 거를 볼 때에 아주, '사명 대사가 철저하게 버릇을 가르쳐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려다가 삐뚜로 가정 얘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사대오온이 다 공(空)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찬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잘디잔 건 빼고도 큰 것만도 여섯 개나 되고, 그 다음에 아홉 개, 그 다음에 열두 개, 그 다음에 열여덟 개, 그 다음에 이십칠 개, 이렇게나 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꽁지가 꽁지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렇단 말이지, 앞으로는 더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년이 흘렀다는 둥, 십년이 흘렀다는 둥, 삼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년 반을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틈이 없이 운행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길 했지마는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여래심지요문릉가경

如來 心地要門 楞伽經 강의 안내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기-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져 禪敎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본 선교연구모임에서는 금번 선종의 중국 초조인 달마대사께서 2조 혜가대사께 心印을 전해줄 적에 함께 전수한 능가경 4권을 총정리한 당나라 화엄종주 현수 법장스님께서 능가현의 깊은 뜻을 밝힌 경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강백이신 각성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포교당 및 사찰주지스님은 물론 불교학자, 재가자 분들은 동참하시어 중생포교와 자기완성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시간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조계종 총무원 국제회의실 강당
- **수 강 료 :** 6개월 25만원
- **자 격 :**
  (가) 비구, 비구니 – 법납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함.
  (나) 재가자 –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출가자 – 수행이력서 1통, 반명함사진 2매
  재가자 – 이력서, 졸업증명서, 반명함 사진2매, 신도증 사본 1매
- **접수기간 : 2007년 7월 13일 - 9월 7일까지**
- **입 금 처 :** 국민은행 429102-04-031256 예금주 최재동
- **문의 및 접수처 :** 02)735-1053 / 핸드폰 018-242-7070, 011-497-8018
- **서류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5-1번지 천마빌딩 905호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禪敎연구모임 운영위원장 법경 합장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교육원 개원안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지 16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더욱 키우고져 생활속에서 함께할 도심속에 포교원을 개원하여 중생의 복밭이 되며 생활속에 지친 불자들의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약속할 도량이기를 발원하옵고

평소에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신적은 없으셨습니까?
보은사 울산 포교원 통명정사로 오십시요!
쉽고,재미있게 자비로운 부처님곁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기초교리, 생활요가

개원일 2007년 8월 11일(토) 오전 10시

요일	강의내용	시 간	대 상	비 고	강 사
월	불교 기본 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도량석,종성,예불, 불공3개월	석원범
화	기초예절,기초교리 및 사찰 건축물의 이해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수	"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혜명
목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금	생활요가	오후 2시~5시	일반	3개월	석동산
토	불교제반의식	오후 2시~5시	일반,스님	재의식,임종염불, 방생,일반법회6개월	석원범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 (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전 화 : 052)247-8883 / 052)238-8819 / 휴대폰 : 010-4554-1412

시공이 없이 빠른 이 진리 속에서 한 차원 넘어서야!

☞21면에서 계속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천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좌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띄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났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좌천보다는 승천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숙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법바퀴를 굴려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볼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술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둘이 아니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한,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세계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는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발되지 못하면 아마다 송두리째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게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호소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뜨겁고 춥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죠.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나마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서천국에, 사천세계에 서천국이 있다 한다면 '서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노라', 또는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으니'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깨쳐서 내가 미지의 세계 서천국으로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현실의 유(有)의 세계에 회전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밝혔으면 불은 항시 켜져 있으니 아촉불이 아니겠는가?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다는 건 부처님 자리를 말할 수 있겠죠. 모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될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생명과 마음이 같이 하니 바로 도리천이라고 할 수밖엔 없겠죠.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 내가 경전에 있는,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들으시리라고 믿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로 봐도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똑 손가락 반쪽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를 해서 잘 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바퀴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한 축, 우리는 지금 이 땅속에서 파 먹을 걸 다 파 먹고, 곶감꼬치처럼 쌓아놓은 거를 다 빼 먹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기야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들이 된다면 또 파 먹을 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말고 "과거에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깐 그만이지. 꿈과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몸이나 벗으면,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벼 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여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꼭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얘길 저쪽으로 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요. 사람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어.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다가 천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년 만에도 바꿀 수 있고 삼년 만에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차원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아까 얘기하듯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리듯 다 굴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요 도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조들의 흉내는 내지 못합니다. 흉내를 내봤자 그렇고, 나는 그것이 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대덕이셨고, 나는 또 지금 현 시대대로의 방편을 그냥 쓰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흉내를 내서 해야만 조사 의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해주면 어떻고,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난 그런 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눈이 있고 귀가 뜨이고, 그 다섯 가지의 굴림이 갖추어진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가지고도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쭉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야. 또 불이 퍽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혓되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히 생각했던 겁니다.

한 손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만 하면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 가선 이렇게 옮아. 옮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 그렇게 해서 옮아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뗄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또는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그 많은 혹성 중에, 별성 중에,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천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의 마음의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리듯 다 굴릴 수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요 道요 바로 자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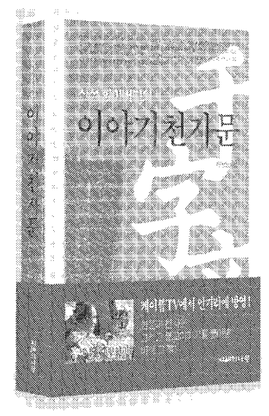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7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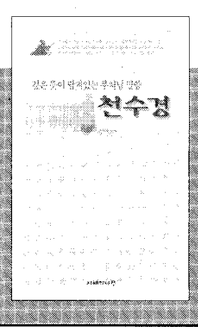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천자문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현자들의 철학과 일화를 통한 붓다의 마음다스리기!
담마난다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절 삼배, 원이삼절, 사십이수진언, 유통분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 값10,000원



불자 세상보기

은 산
부산 금선사 주지

'짱'을 꿈꾸는 '짝퉁' 시대

요즘 청소년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짱'과 '짝퉁'이라는 말이 있다.

'짱'이란 얼(얼굴)짱, 공부짱, 쌈(싸움)짱같이 한 분야에서 남다르게 뛰어나거나 최고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일컫을 때 쓰이는 모양이다.

'짝퉁'은 명품을 흉내 낸 가짜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에는 중국이 종주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짝퉁'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짝퉁'의 범주를 넘나드는 양심이나 우정, 애정도 적지 않다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아무튼 참 우스우면서도 신통한 것은 이 '짱'이나 '짝퉁'은 어디에다 붙이든 제 역할을 보란 듯이 척척 잘도 해낸다는 점이다.

이제 두 낱말은 이미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들 못지않게 최고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흉내내려는 '짱'과 '짝퉁'의식은 처음엔 낱말을 트집 잡던 어른 사이에서도 이미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거개의 사람들은 일년을 하루같이 '돈짱', '권력짱', '몸짱', '재주짱' 등을 화두처럼 끌어안고 산다. 그러다보니 '짱'이 되면 어깨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짱'이 못된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기 일쑤다.

물론 '짱'을 꿈꾼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또 '짱'이 되었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을 일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설령 '짱'이 못되었다고 해서 모두 '짱'의 반대인 이른바 '꽝'은 아니다. 여기서 '짱'은 못되면서 '꽝'은 면하려는 몸부림의 틈새를 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짝퉁'이 아닌가 한다. '짝퉁'은 겉치장과 모방심리가 빚어낸 합작품이랄 수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꽝'을 모면하려는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왠지 '꽝'이 될지언정 '짝퉁'은 되지 말았으면 싶다.

'꽝'은 왠지 '짱'과 '짝퉁'을 뛰어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나 '짝퉁'은 그 가능성이 오히려 아주 희박할 것 같은 기우에 젖어들게 되어서다.

또한 '짱'을 꿈꾸되 '짱'이 못되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다.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짱'이나 '꽝'이나 그 틈새의 '짝퉁'이나 모두 환상, 거품, 그림자처럼 허무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짱'이나 '꽝'은 없으며 '짱'이 아니어도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을 사람들은 '맘짱'이라 부른다.

'맘짱'! 그렇다! 정작 그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마음이라고 우리는 곧잘 떠벌려대지만 또 얼마나 쉽게 망각해오곤 했던가?.

중요한 것은 '짱'이 아니라 '짱'이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이다.

세상엔 진품과 똑같은 가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만도 못한 진짜들도 판을 치며 살고 있다.

'짝퉁'보다 함량이 미달인 '짱'도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다.

한 지식인은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시대는 이미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짝퉁'시대는 인간의 양심과 숨결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짝퉁'이 사라지고 '짱'들과 '짱'을 꿈꾸는 사람 가운데 '맘짱'들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멸종되어 가는 착한 동식물들처럼 우리 내면에 얼마 안남은 '맘짱'의 분자들마저 나날이 멸종되어가고 있는 듯해 앞으로 세상살이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적이 염려스럽다.

'종교자유' 칼럼

23. 서울이 하나님께 봉헌되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인들 '政敎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그동안 본 칼럼이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종교의 사회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다.

공적 영역 중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강제적인 예배와 종교교육, 특정종교인 선별채용 등 위헌의 소지가 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종교현상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화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은 알아차린 순간 이미 반은 고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인 '종교병'도 국민적 관심 속에 말끔히 나아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희망한다.

이번 회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적 영역의 문제들, 즉 공인(公人)의 종교·사회적 행위로서 주로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사전적으로 공인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관청이나 공공단체,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 예산 또는 공공시설을 특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대중들에게 늘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예컨대 정치인, 언론방송인, 연예인, 국가대표, 교육자, 종교지도자 등-을 통칭하여 '공인'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자유권과 평등권 등 시민권에 대한 자각이 크게 일어나 예전에 그냥 지나쳤음직한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종교와 관련된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사회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강의석 군의 '예배강요 거부' 사건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두 사건 모두 같은 해에 발생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지도 모른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벽이 무너진 시점에서 종교계가 마지막 남은 성역이자 개혁대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장로의 그 유명한 '서울시 봉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04년 5월 30일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장충체육관에서 'Again 1907 in Seoul-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주제로 개신교 전파(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백주년을 기리기 위한 예비 축제 성격의 행사가 열렸다.

서울지역 대형교회와 청년선교단체 등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개신교 청년들이 참석한 '청년·학생연합기도회'라는 종교집회였다. 5월 31일 새벽 이 행사에 초청받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밝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사'를 직접 낭독했다.



이명박 前 서울시장

이 사실이 1개월이 지난 7월 1일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 시장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종교 활동에 한 나라의 수도를 종교적으로 바친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개인 것이냐"던 한 시민의 인터뷰가 문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불교시민단체로 구성된 종교평화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어느 불자는 "기독교인 아니면 서울서 나가란 얘기로 들린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정치인들도 "그나저나 서울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됐으니 수도를 옮기긴 옮겨야겠어요"(유인태 의원), "사람 땅으로 옮겨야지요"(임채정 의원) 등 수도권 이전 문제와 연결시켜 가시 돋친 농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당시 이 시장의 목영만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참석한 건데 문제될 게 있느냐.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종교적 행위 자체를 비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국민적 정서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일 이 시장이 읽은 봉헌사에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라고 되어 있어 분명히 직함을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봉헌서 표지에도 '서울시 공식 휘장'까지 새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주최측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2007년에는 아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전국적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하였다고 하니, 개신교 청년들의 종교적 순수성도 의심스럽거니와 대권에 눈이 멀어 종교를 이용하겠다는 이명박 장로를 보면 측은지심까지 생긴다.

맑은 세상, 화평한 사회를 위해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자의 눈

억류된 동포들에게 생명의 빛 내리소서

제불 보살이시여!

올 여름 한국은 뜨겁습니다. 23명의 동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의 인질이 된 순간부터 이 여름의 뜨거움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납치 14일이 지난 이 시점, 남자 2명이 살해되어 시신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21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사막의 기지나 동굴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주변 이슬람 국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억류된 동포들의 생명이 태풍 앞의 촛불입니다. 협상 시한이나 조건 등 모든 상황이 테러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고 보면, 우리 국민과 자유를 숭상하는 인류의 안타까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제불보살이시여!

온 국민이 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더 이상 인명이 '협상'의 도구가 되지 않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과 염원이 있을 뿐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종교계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갔던 그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교회나 개신교측은 '지나친 선교활동'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나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 종교들까지 침묵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아니더라도 각 종교의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각 종교의 방법대로 억류된 그들을 위한 종교적 행동은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종단들이 동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거나 기원법회를 열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대비의 동사섭 정신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또 다른 자기모순이고 종교간의 화합을 촉구해 온 선언들이 '구두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불 보살이시여!

지금 인류는 참담한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족과 지역 이기주의, 세계를 뒤덮은 물질만능주의, 인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외면해 온 업보를 스스로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테러도 그 근본은 모두가 욕망입니다. 자기를 위해 누군가를 살상하고 짓밟는 집단이 있는 한 사바세계는 활활 타오르는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법계를 불태워 극락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키려는 범인류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불 보살이시여!

불자 개인은 물론 온 인류가 욕망에 휘둘려 살고 있는 이 참상을 참회하옵니다. 타인의 역사와 문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무례함도 참회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치 아니한 오만함도 참회합니다. 저희들의 이 진참회가 이역만리에서 공포의 나날을 보내는 동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길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제불보살의 가피 충만 하소서.

▶◀ 현대불교신문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동포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희생된 분들의 넋과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봉축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행 사 :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8월 12일 오전 10시 (일요일, 음력 6월 30일)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2번지 '묵언마을'
☎ 0502-114-오! 천사. 031)672-9114. 011-8282-112. 011-8282-113
■ 오시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일죽, 음성나들목-묵언마을
대중교통 : 서울(30분마다)-남부터미널-동서울터미널-죽산하차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에 초대합니다.

'묵언마을'은 시인 겸 수필가인 승려 지개야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洞天 칠현산에서 홀로 5년간 창건한 사찰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를 가득 받아 가시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



'안동 봉정사'로 떠난 열한번째 법회

7 월 25일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분홍색 물결이 일렁였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전통과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안동 봉정사에 기차로 순례기도회를 떠나기 때문이었다. 사찰에서 버스를 빌려 순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은 기차로 떠난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떠나는 8 백 여 회원들은 저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올랐다. 오전 6시 50분 순례의 새 장을 여는 첫 열차가 청량리역을 출발했다.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을 빠져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금방 남한강 변을 달리고 있었다.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차창 밖을 보며 옛 이야기를 꺼내며 지난 추억들로 함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20여년 만에 기차를 탄다는 은평구에 사는 이애자(70) 씨는 "기도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인데 선묵혜자 스님 덕분에 기도도 하고 기차 여행도 같이 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차는 영주를 향해 달려가고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차창 밖으로 달려가는 푸른 산과 물을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읊조리며 염주알을 하나씩 굴렸다.



안동 봉정사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 기도회 11번째 법회는 기차 여행으로 진행돼 새로운 즐거움이 됐다.

8백여 신도 伏더위도 잊고 기도 삼매

선묵혜자 스님, 아프간 피랍 한국인 무사귀환 기원 발원문도





아프카니스탄에 억류된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현수막을 걸고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위) 아래 사진은 순례 동참 확인 염주를 환경컵에 나눠주는 모습.

4 시간을 기차로 달려 영주에 도착한 108산사순례기도회 원들을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은 것은 군악대의 환영 연주였다. 영주역에서 버스로 20여분 가자 천등산 봉정사 입구에 도착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은 각자 준비한 초코파이를 한 손에 들고 절에 오르기 시작했다. 일주문에는 인근 부대에서 걸어 놓은 '어머니 고맙습니다, 초코파이 잘 먹겠습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이 기도회 회원들을 맞았다.

일주문 옆에는 순식간에 초코파이가 쌓이기 시작했다. 3일에 걸쳐 3 천 여 회원들이 준비한 초코파이는 4 만 여 개를 훨씬 넘겼다. 이 초코파이는 인근 부대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보시 할 계획이다.

안동 봉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보문 제55호)과 극락전(국보 제15호) 등이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1999년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해 극락전과 법고 시연 등을 보고 감탄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2000년에 대웅전 보수 공사 과정에서 1435년에 쓴 상량문이 발견 됐다. 상량문에는 '신라대 창건 이후 500여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다' 라는 기록이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건물로 추정된다. 봉정사 우측 계단을 오르면 영산암을 볼 수 있다. 영산암은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과 '동승' 의 촬영지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다.

봉정사에 오른 순례기도회는 분주하게 대웅전 앞 마당과 만세루 등에 기도포를 깔고 기도 준비를 시작했다. 7월 삼복 중 중복을 몇 일 지나지 않아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천수경>, 108대참회문 순으로 이어진 법회에 기도삼매에 빠졌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뜻을 가지고 기도를 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한다"며 밝은 얼굴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봉정사 주지 자현 스님은 "자기를 바로 찾고 기도한다면 기도회 회원들이 부처님 보살님이 될 것이다"며 "여러분의 원력이 모든 중생에게 미쳐서 모두가 부처님이 될 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안동시 권오을 국회의원은 "108산사기도회가 대단한 신심으로 뭉쳐진 모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서 기쁘다"며 "농촌을 자주 찾아주는 것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며, 기도회의 수행과 봉사의 모습에 감사 한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법회가 끝난 후 선묵혜자 스님은 안동지역의 복지시설에 기탁해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환경컵' 전달식을 하고 "환경지킴이 활동과 더불어 종이컵을 쓰지 않는 친환경 캠페인에 앞장서기 위해 우리 108산사기도회가 환경컵 사용을 하자"고 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아프카니스탄에 봉사 활동을 갔다 탈레반 무장세력에 피랍된 한국인의 무사 귀환을 위해 "현재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무사 귀환하기를 바란다"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순례에 참가했다는 증표인 봉정사 글씨가 새겨진 염주알을 하나씩 환경컵에 넣어 주었다.

염주알을 받은 기도회 회원들은 일주문 옆에 차려진 안동특산물 매장에서 지역 농산물인 안동 간고등어, 마, 마늘, 김치 등을 구입했다. 8월 순례기도는 16, 17, 18일 3일간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안동 / 글·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